

The 논술	2016 서강대 모의논술
--------	------------------

[문제]	제시문 [가]에서 다루는 문제와 관련한 두 논점을 [나]~[바]에서 찾아 정리하고, 이를 논거로 활용하여 국가가 [가]의 문제를 해결할 때의 어려움을 논의한 다음, 그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라.
------	---

제시문 [가]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급속도로 발달함에 따라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여성이나 아동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대두되었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살고 있는 우리는 부의 불평등한 분배와 불공정성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부를 바탕으로 더 많은 부를 얻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적은 소득을 얻어 빈부 격차가 커진다. 사람들은 협동을 통해 더 큰 이익을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얻은 이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쉽게 합의하지 못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서구 사회에서의 분배 기준은 주로 공적이었고, 빈민의 비참함을 덜어 주는 것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다만 귀족이나 종교 단체가 자선을 통해 빈민의 어려움을 덜어 줄 뿐이었다. 근대에 와서 사람들은 공적과 무관하게, 분배받지 못한 사람들도 주택·의료·교육 등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면서, 이러한 일을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칸트는 개인이 행하는 적선(積善)은 주는 사람의 자만심을 키우고 받는 사람의 품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빈민을 부양하는 것은 국가가 나서야 할 일이라고 여겼다. 또한, 빈민 부양을 위해 국가가 모든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빈민 부양에 이바지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는 모든 구성원이 쾌적한 생활 환경 속에서 안녕과 행복을 누리는 삶을 의미하는 복지를 담당하게 되었다.

제시문 [나]

이미 노숙인들을 위한 공공과 민간단체의 재정으로 지원되는 많은 사회적 제도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민간단체나 공공 영역에서의 노숙인 지원 사업은 날로 활성화되고 있다. ...중략... 그런데도 여전히 노숙인의 재활과 사회로의 복귀는 쉽지 않다. 오히려 노숙인의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종류의 서비스 제공은 어떤 면에서는 공무원의 일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종교단체의 선교와 봉사 차원의 사역일 수도 있다. 표면적으로는 노숙인 관련 서비스들은 공공 재정과 종교단체 후원금으로 제공되는 선한(?) 사업으로만 보일 수도 있다. ...중략... 그러나 사회복지의 대상자인 노숙인들과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노숙인들이 사회로 통합되기까지 지속적으로 그들과 관계 맺는 것이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일은 아닐 수도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 복지 종사자들의 업무는 점점 관행적으로 흘러 생명력 없이 일하기 쉽다. 사회복지 종사자들도 대상자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적당히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현재 사회복지 관련 공공기관 나름의 원칙과 기존의 재정 공급만으로는, 노숙인 개개인이 사회 속으로 통합될 때까지 장기적으로 한 사람을 돌보는 것을 목표로 서비스 내용을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이든, 민간기관이든 사회복지서비스는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사회적인 인간관계를 통해서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또 어느 시점에서는 멈춰야 한다는 원칙도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들도 다 인간이고 사회복지서비스를 받는 사람들도 모두 인간이다. 생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받는 과정이 얼마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뤄지느냐에 따라, 같은 밥을 주고 같은 방을 지원해 줘도 때로는 그 서비스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인격 모독이 되기도 한다.

제시문 [다]

선왕: 나와 같은 사람도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왕이 될 수 있겠소?

맹자: 물론입니다.

선왕: 무슨 근거로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맹자: 신은 호흠(胡訖)이라는 신하가 한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왕께서 대전(大殿)에 앉아 계실 때 어떤 사람이 대전 아래로 소를 끌고 지나갔는데 왕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소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고 물으시자 그 사람은 “흔종(鬻鍾, 완성된 종에 소의 피를 바르는 의식)에 쓰려고 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왕께서 “그 소를 놓아주어라. 부들부들 떨어서 죄 없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나는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흔종 의식을 폐지할까요” 그러자 왕께서는 “흔종을 어찌 폐지할 수 있겠느냐. 소 대신 양으로 바꾸어라”고 하셨는데 그런 일이 정말로 있었습니까

선왕: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맹자: 그런 마음씨라면 충분히 천하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왕이 인색해서 소를 양으로 바꾸라고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신은 왕께서 부들부들 떨어서 사지로 끌려 가는 소를 차마 볼 수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선왕: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백성도 있을 것입니다만, 제(齊)나라가 아무리 작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내가 어찌 소 한 마리가 아까워서 그렇게 하였겠습니까? 죄 없이 부들부들떨면서 사지로 끌려가는 소를 차마 볼 수가 없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맹자: 백성들이 왕을 인색하다고 하더라도 언짢게 여기지 마십시오. 작은 것으로 큰 것을 바꾸라고(以小易大) 하셨으니 그렇게 생각한 것이지요. 어찌 왕의 깊은 뜻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죄 없이 사지로 끌려가는 것을 측은하게 여기셨다면 (소나 양이 다를 바가 없는데) 어째서 소와 양을 차별할 수 있습니까(牛羊何擇焉)?

선왕: 정말 무슨 마음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재물이 아까워서 그런 것은 아닌데 소를 양으로 바꾸라고 했으니 백성들이 나를 인색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당연하겠군요.

맹자: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곧 인(仁)의 실천입니다. 소는 보았으나 양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군자가 금수(禽獸)를 대함에 있어서 그 살아 있는 것을 보고 나서는 그 죽는 모습을 차마 보지 못하고, 그 비명 소리를 듣고 나서는 차마 그 고기를 먹지 못합니다. 군자가 푸줏간을 멀리하는 까닭이 이 때문입니다.

제시문 [라]

어제 S병원 병실에서 본 일이다. A라는 7, 8세밖에 안 된 귀여운 소녀가 죽어 나갔다. 적리(赤痢, 급성 전염병인 이질의 하나)로 하루는 집에서 앓고, 그 다음 날 하루는 병원에서 앓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오후에는 시체실로 떠메어 나갔다. 사흘 밤낮을 지키고 앉아 있었던 어머니는 아이가 운명하는 것을 보고, 죽은 애 아버지를 부르러 집에 다녀

왔다. 그동안 죽은 애는 이미 시체실로 옮겨가 있었다. 부모는 간호부더러 시체실을 알려 달라고 청하였다.

“시체실은 자물쇠 다 채우고 아무도 없으니까, 가 보실 필요가 없어요.”하고 간호부는 툭쏘아 말하였다. 퍽 싫증 난 듯한 목소리였다.

“아니, 그 애를 혼자 두고 방에 자물쇠를 채워요”라고 묻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었다.

“죽은 애 혼자 두면 어때요”라고 다시 툭 쏘는 간호부의 목소리는 얼음같이 싸늘하였다. 이야기는 간단히 이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때 몸서리쳐짐을 참을 수가 없었다.

‘죽은 애를 혼자 둔들 어떠하리!’ 사실인즉 그렇다. 그러나 그것을 염려하는 어머니의 심정! 이 숭고한 감정에 동정할 줄 모르는 간호부가 나는 미웠다. 그렇게까지도 간호부는 기계화되었는가? 나는 문명화한 기계보다도 야만인 인생을 더 사랑한다. 과학적으로 볼 때, 죽은 애를 혼자 두는 것이 조금도 틀릴 것이 없다. 그러나 어머니로서 볼 때에는 …….

제시문 [마]

부자가 그런 교만한 생각을 안고 한 끼의 식사를 베풀 때마다 이를 받아들이는 상대방의 자아 그 자체를 휘어잡고 그의 마음속까지도 임의로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나머지 부자는 상대방의 내면에 일고 있는 분노를 간과하고 만다. 온갖 사슬이 완전히 풀려버려서 갈기갈기 찢겨진 채로 그 어디에서도 자신만의 안정된 상태를 누릴 수 있는 여지라곤 없이 모든 안정과 지속성이 허물어져버렸다는 것, 이런 가운데 특히 시혜자로서 생각할 수 있는 이러저러한 소견이나 의향마저도 모두 배반당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만다. 이제 더 이상 의지하고 지켜내야 할 근본토대가 사라져버린 마당에 그는 가장 깊숙한 내면의 나락과 깊이를 헤아릴 길 없는 심연의 끝자락에 서게 된다. 이 심연 속에서 비쳐나오는 것은 부라는 하찮은 속물과 이를 수중에 넣으려는 부질없는 생각 그리고 언제라도 분출될 수 있는 오기 이외의 다른 어떤 것도 아니다. 결국 부자의 정신은, 본질은 사라진 채 세상의 표면을 훑고 다니는 망상과 같은 것이다.

제시문 [바]

분배 정의에 관한 원리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누가 소유물을 받아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에 초점을 맞춘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좋건 나쁘건, 주는 행위를 완전히 무시한다. 분배 정의의 통상적 이론들이 왜 받는 사람 쪽에서 서술되는지는 설명할 수 없다. 주는 사람과 정당하게 교환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나 그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은 생산자와 그들의 소유권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왜 이 모든 것들이 무시되는가? 각 개인의 소유물은 그가 다른 사람과 교환하였거나 선물로 얻은 것이다. 자유세계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다른 물건을 손에 쥐고 있으며, 새로운 소유물은 자발적 행위에서 발생한다. 정의 원리에 따라 소유물을 최초로 취득한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며, 어떤 소유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사람에게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사람은 그 소유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 어느 누구도 이 두 방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소유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

[문제] 풀이	
제시문 [가]에서 다루는 문제와 관련한 두 논점을 [나]~[바]에서 찾아 정리하고, 이를 논거로 활용하여 국가가 [가]의 문제를 해결할 때의 어려움을 논의한 다음, 그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라.	
1) 논제이해	
①	제시문 [가]에서 다루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밝히시오.
②	[나]~[바]를 [가]와 관련한 두 논점으로 나누고 첫 번째 논점을 [가]와 연결하시오.
③	첫 번째 논점을 통해 국가가 [가]의 문제를 해결할 때의 어려움을 논의하시오.
④	[나]~[바]를 [가]와 관련한 두 논점으로 나누고 두 번째 논점을 [가]와 연결하시오.
⑤	두 번째 논점을 통해 국가가 [가]의 문제를 해결할 때의 어려움을 논의하시오.
⑥	두 가지 문제의 해결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2) 제시문 독해 (요약 및 비교의 원리를 이용하여)	
[가]	제시문 내용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급속도로 발달함에 따라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여성이나 아동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대두되었다. 근대에 와서 사람들은 공적과 무관하게, 분배받지 못한 사람들도 주택·의료·교육 등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면서, 이러한 일을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칸트는 개인이 행하는 적선(積善)은 주는 사람의 자만심을 키우고 받는 사람의 품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빈민을 부양하는 것은 국가가 나서야 할 일이라고 여겼다. 또한, 빈민 부양을 위해 국가가 모든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빈민 부양에 이바지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는 모든 구성원이 쾌적한 생활 환경 속에서 안녕과 행복을 누리는 삶을 의미하는 복지를 담당하게 되었다.
	기준에 따른 독해 (재구성)
	제시문 [가]는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빈부격차와 사회적 약자의 등장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분배 및 복지제도에 대한 글이다. 빈민 부양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복지제도의 근거를 제시한다.
[나]	제시문 내용 (선택과 삭제)
	사회복지의 대상자인 노숙인들과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노숙인들이 사회로 통합되기까지 지속적으로 그들과 관계 맺는 것이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일은 아닐 수도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업무는 점점 관행적으로 흘러 생명력 없이 일하기 쉽다. 사회복지 종사자들도 대상자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적당히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현재 사회복지 관련 공공기관 나름의 원칙과 기존의 재정 공급만으로는, 노숙인 개개인이 사회 속으로 통합될 때까지 장기적으로 한 사람을 돌보는 것을 목표로 서비스 내용을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이든, 민간기관이든 사회복지서비스는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사회적인

	<p>인간관계를 통해서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또 어느 시점에서는 멈춰야 한다는 원칙도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들도 다 인간이고 사회복지서비스를 받는 사람들도 모두 인간이다. 생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받는 과정이 얼마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뤄지느냐에 따라, 같은 밥을 주고 같은 방을 지원해 줘도 때로는 그 서비스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인격 모독이 되기도 한다.</p> <p>기준에 따른 독해 (재구성)</p> <p>[나]는 노숙인을 위한 복지제도에서 단순히 지원사업을 늘리는 것은 그 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노숙인들과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회적인 “인간관계”를 통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다. 서비스의 제공과정이 얼마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같은 서비스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오히려 인격 모독이 될 수도 있다.</p>
<p>[다]</p>	<p>제시문 내용</p> <p>선왕: 나와 같은 사람도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왕이 될 수 있겠소?</p> <p>맹자: 신은 호흫(胡龔)이라는 신하가 한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왕께서 대전(大殿)에 앉아 계실 때 어떤 사람이 대전 아래로 소를 끌고 지나갔는데 왕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소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고 물으시자 그 사람은 “흔종(鬮鍾, 완성된 종에 소의 피를 바르는 의식)에 쓰려고 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왕께서 “그 소를 놓아주어라. 부들부들 떨면서 죄 없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나는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흔종 의식을 폐지할까요” 그러자 왕께서는 “흔종을 어찌 폐지할 수 있겠느냐. 소 대신 양으로 바꾸어라”고 하셨다는데 그런 일이 정말로 있었습니까</p> <p>선왕: 정말 무슨 마음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재물이 아까워서 그런 것은 아닌데 소를 양으로 바꾸라고 했으니 백성들이 나를 인색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당연하겠군요.</p> <p>맹자: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곧 인(仁)의 실천입니다. 소는 보았으나 양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군자가 금수(禽獸)를 대함에 있어서 그 살아 있는 것을 보고 나서는 그 죽는 모습을 차마 보지 못하고, 그 비명 소리를 듣고 나서는 차마 그 고기를 먹지 못합니다. 군자가 푸줏간을 멀리하는 까닭이 이 때문입니다.</p> <p>기준에 따른 독해 (재구성)</p> <p>[다]는 왕도정치에서 인을 실천하는 중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그 측은함이라는 감정의 핵심이 보고, 만나고, 서로 안다는 직접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p>
<p>[라]</p>	<p>제시문 내용</p> <p>그동안 죽은 애는 이미 시체실로 옮겨가 있었다. 부모는 간호부더러 시체실을 알려 달라고 청하였다.</p>

	<p>“시체실은 자물쇠 다 채우고 아무도 없으니까, 가 보실 필요가 없어요.”하고 간호부는 툭쏘아 말하였다. 퍽 싫증 난 듯한 목소리였다.</p> <p>“아니, 그 애를 혼자 두고 방에 자물쇠를 채워요”라고 묻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었다.</p> <p>“죽은 애 혼자 두면 어때요”라고 다시 툭 쏘는 간호부의 목소리는 얼음같이 싸늘하였다.</p> <p>이야기는 간단히 이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때 몸서리쳐짐을 참을 수가 없었다. ‘죽은 애를 혼자 둔들 어떠하리!’ 사실인즉 그렇다. 그러나 그것을 염려하는 어머니의 심정! 이 숭고한 감정에 동정할 줄 모르는 간호부가 나는 미웠다. 그렇게까지도 간호부는 기계화되었는가? 나는 문명화한 기계보다도 야만인 인생을 더 사랑한다. 과학적으로 볼 때, 죽은 애를 혼자 두는 것이 조금도 틀릴 것이 없다. 그러나 어머니로서 볼 때에는 …….</p> <p>기준에 따른 독해 (재구성)</p> <p>제시문 [라]는 주요섭의 “미운 간호부”라는 수필로 비인간화되어 가는 사회의 모습에서 딸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간호사의 모습이 제시된다.</p>
[마]	<p>제시문 내용</p> <p>부자가 그런 교만한 생각을 안고 한 끼니의 식사를 베풀 때마다 이를 받아 들이는 상대방의 자아 그 자체를 휘어잡고 그의 마음속까지도 임의로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나머지 부자는 상대방의 내면에 일고 있는 분노를 간과하고 만다. 온갖 사슬이 완전히 풀려버려서 갈기갈기 찢겨진 채로 그 어디에서도 자신만의 안정된 상태를 누릴 수 있는 여지라곤 없이 모든 안정과 지속성이 허물어져 버렸다는 것, 이런 가운데 특히 시혜자로서 생각할 수 있는 이러저러한 소견이나 의향마저도 모두 배반당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만다. 이제 더 이상 의지하고 지켜내야 할 근본토대가 사라져버린 마당에 그는 가장 깊숙한 내면의 나락과 깊이를 헤아릴 길 없는 심연의 끝자락에 서게 된다. 이 심연 속에서 비쳐나오는 것은 부라는 하찮은 속물과 이를 수중에 넣으려는 부질없는 생각 그리고 언제라도 분출될 수 있는 오기 이외의 다른 어떤 것도 아니다. 결국 부자의 정신은, 본질은 사라진 채 세상의 표면을 훑고 다니는 망상과 같은 것이다.</p> <p>기준에 따른 독해 (재구성)</p> <p>제시문 [마]는 부자의 교만으로 자선을 통한 부의 배분이 어려울 수 있다는 내용의 글로 헤겔의 “정신현상학”의 일부이다.</p>
[바]	<p>제시문 내용</p> <p>자유세계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다른 물건을 손에 쥐고 있으며, 새로운 소유물은 자발적 행위에서 발생한다. 정의 원리에 따라 소유물을 최초로 취득한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며, 어떤 소유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사람에게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사람은 그 소유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 어느 누구도 이 두 방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소유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p> <p>기준에 따른 독해 (재구성)</p> <p>[바]는 복지정책의 재분배 과정에서 국가가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하는 입장으로, 국가 권력이 개인의 자유를 제약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p>

3) 답안 작성	
서강대 우수답안	
1문단	<p>제시문 [가]에 따르면 자본주의의 부작용으로 빈부격차와 사회적 약자 문제가 등장하며 국가가 나서서 빈민 부양 등 복지 제도를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는 복지정책의 재분배 과정에서 국가가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하는 입장으로, 국가 권력이 개인의 자유를 제약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한편, 제시문 [나]~[마]는 사회적 약자를 돕는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공감(동정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다]는 왕도정치에서 인을 실천하는 중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그 측은함이라는 감정의 핵심이 보고, 만나고, 서로 안다는 직접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나]는 노숙인을 위한 복지제도에서 단순히 지원사업을 늘리는 것은 그 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노숙인들과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회적인 “인간관계”를 통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다. 서비스의 제공과정이 얼마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같은 서비스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오히려 인격 모독이 될 수도 있다. 한 예로, [라]의 간호사는 주어진 일을 기계적으로 실행할 뿐 어린 딸을 잃은 어머니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해, 오히려 수혜자에게 상처를 준다. [마]에서 가난한 자를 돕는 부자의 호의가 상대방의 내면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만해 질 때 적대적 대립이 생기고, 부자의 정신은 껍데기만 남은 망상과 같이 된다. [나]~[마]는 공통적으로 참여자의 마음이 없는 공감이 반영되지 못한 복지 제도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p>
2문단	<p>복지서비스가 인격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정책담당자는 물론, 사회적 인식에 변화가 필요하다. 가난한 사람의 존엄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데에서부터 사회적 인식이 변화한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에게 스스로 자신의 부를 나누어 주는데 동참하게 되고, 소득 이전의 과정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p>
5) 출제 의도	
<p>분배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의 도덕적인 근거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 정책의 어려움을 제시문을 통해 이해하는가를 묻는다. 특히 여러 제시문에서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감” 및 배려적 사고의 개념을 찾아 내고 제시문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p>	
6) 채점기준	
<p>첫째, 제시문의 적절한 분류와 해석: 1) 제시문 [바]에서 재분배의 문제와 소유권이라는 개인 자유의 침해의 문제점을 찾아내었는가. 2) 제시문 [나]~[마]에서 공감(동정심)을 통한 감성적인 도움의 중요성을 추출해내고 그 관점에서 제시문의 내용을 적절히 해석하였는가. 둘째, 제시문을 적절히 활용하여 복지 정책의 어려움(자유 침해, 특히 공감이 없는 형식적인 복지제도의 한계)을 논리적으로 지적하였는가. 3) 위에 언급된 복지 정책의 난관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창의적, 논리적으로 제시하였는가</p>	

7-1) 답안 사례 1

제시문 [가]에서는 경제 발전에 따른 빈부격차의 문제와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나]~[바]는 이 문제들에 대한 논점을 가지고 있다.

제시문 [나]에서는 노숙인들에 대한 지원에서 인격적 관계맺음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사회 복지 종사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이 담기지 않은 그러한 일로 변해갈 수 있고, 이것은 노숙인들에게는 인격적 모독이 될 수있기 때문이다. 제시문 [다]에서는 소에 대한 배려를 보인 선왕에 대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선왕은 소가 안쓰러워 소 대신 양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으나 결국은 양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버렸다. 문제의 근원인 혼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임시적인 정책에 불과했다 것을 시사한다. 제시문 [라]에서는 죽은 아이의 엄마에 대한 배려를 보이지 않는 간호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 제시문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공감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시문 [마]에서는 부자의 교만한 베품에 대한 문제점을 보여준다. 부자의 가식적인 베품은 사람들을 오히려 화나게 만든다는 점을 보여준다. 제시문 [바]에서는 분배의 정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베푸는 입장도 중요하므로 주는 행위의 가치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가가 빈부격차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제공하는 과정에는 여러 어려움이 따른다. 위 제시문들에서 보았던 것처럼 수혜자가 인격적인 모독이라고 느끼지 않도록 적절한 상황과 관계를 형성해야 하고,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다른 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아야 한다. 또한 형식적인 복지만이 아니라 약자들의 감정적인 것까지 이해해주어야 하며 절대로 이 복지로 인한 생색을 내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복지의 큰 부분을 담당하는 부유층에 대한 배려와 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 이러한 방법을 지켜야만 국가가 사회적약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7-2) 평가

이 글의 첫째 단락은 전체 글이 어떤 질서로 어떻게 구성될지에 대한 정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나]~[바]는 이 문제들에 대한 논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글의 기술은 논제를 그대로 옮겨 온 것이지 자신의 글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안내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 글은 ‘[나]~[바]’가 ‘[나]~[마]/[바]’로 구분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나]~[마]’를 통해서 공감과 배려에 기반에 둔 복지를 이끌어내었고 [바]를 통해서 자발성을 이끌어 내고 있는 것이다. 이 답안의 긍정적 지점은 고등학생 수준에서 핵심어를 통한 제시문의 요약에 뛰어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나]에 대한 ‘인격적 관계맺음의 중요성’, [라]에 대한 공감으로부터의 배려, [마]의 ‘교만한 베품’ 등의 핵심어를 추출해 이를 활용한 것이 좋다. 그리고 이 핵심어들을 마지막 논제인 ‘국가가 복지를 제공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연계하였다는 점이 좋다. 덧붙여 ‘복지의 큰 부분을 담당하는 부유층의 자발적 참여’라는 주요 지점을 이끌어 낸 점도 좋다.

8-1) 답안 사례 2

제시문 <가>에서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발달에 따른 빈부격차의 심화 문제와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체제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먼저, 빈부격차 심화의 문제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부자는 더욱 부를 축적하게 되고, 빈자는 더욱 부를 잃는다는 사회적인 환경에 따라 발생한다. 따라서 계속해서 부를 축적할 수 없는 빈자들을 위한 사회적 보장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제시문 <마>에서 부자의 정신은 양심이나 덕과는 멀어진 채로, 재물에만 집중 할 뿐이다. 더불어, 제시문

<바>에서 보았을 때, 빈자에게 일정한 사회적 보장 제도가 주어졌을 때, 빈자들은 도움을 받는 행위를 무시하곤 해, 빈부격차를 심화시킨다. 이러한 사회 환경을 보았을 때, 사회는 생산적 복지 체제를 통한 빈부격차 완화를 실행해야 할 것이다. 생산적 복지 체제란, 빈자들에게 일정 서비스를 제공하되, 빈부격차 완화를 위해, 빈자들의 소득이 생길수록 적정수준의 서비스를 더욱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해결한다면, 빈자와 부자의 빈부격차 수준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사회적 만족도 또한 증가할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복제체제의 문제는정보화 사회가 됨에 따라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사회의 다원화로 설명할 수 있다. 21세기 사회는 한 개인에게 주어진 역할이 다양하게 구성된다. 제시문 <나>와 <라>에 따르면 사회 복지사들 역시, 아무런 감흥없이 계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각박한 세태 속에서 복지사들은 사회서비스 수혜자 개개인의 감정을 존중하면서 면대 면으로 소통하기가 어려워진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강화를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의 복지사들의 수를 늘려야 할 것이며, 더불어 사회서비스수혜자들 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인 복지사들에게, 추가성과급 지급 등의 행위를 통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8-2) 평가

논제는 [가]에서 다루는 문제와 관련한 두 가지 논점을 [나]에서 [바]까지에서 찾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글의 구성은 이 글을 쓴 사람이 두 가지 논점을 포착하지 못한 것을 드러낸다. 일단 제시문 [나]~[바]의 입장이나 내용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다.(심지어 [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나]~[바]에서 찾을 것을 논거로 활용하여 [가]의 문제를 해결할 때의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생략되었다. 이 때문에 그 어려움을 국가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대안이 제대로 도출될 수 없었던 것이다. 이 학생의 입장에서는 자신은 ‘두 논점’을 ‘먼저’와 ‘다음으로’와 나누어 제시하였고, 전반부에서 ‘논점의 정리’를 후반부의 ‘사회적 다원화’에서 문제해결의 어려움을 다루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이 학생의 말 그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질서로 글을 구성하고 있는지를 첫 단락에서 제시하였어야 했다. 그래야 글의 질서를 독자가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두 번째 단락에서 다루었다고 생각하는 ‘논점의 정리’는 문제 그대로 ‘[나]~[바]’에서 찾아 정리되어야 한다. [마], [바]/[나], [라]를 분할하여 이를 시도한 것 자체에서 이미 논제가 준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히 해석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드러난다. 만약 이 글을 쓴 학생이 [마], [바]/[나], [라]를 분할하는 질서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 분할의 기준이 서론적인 첫 번째 단락에서 기술했어야 한다. 그래야 구성상의 체계성을 더 확보할 수 있다. 물론 첫 단락에 이를 기술했다 할지라도 제시문을 선정한 문제 출제자의 의도와는 벗어나기 때문에 다른 지점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제시문 파악>

제시문 [가]를 통해 포착하여야 중요 내용 중 일부가 누락되었다.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라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경제적 소외층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복지 문제가 발생된다는 지점은 포착하였으나 복지를 담당하여야 할 주체가 ‘국가’라는 점을 포착하지 못하였다. 이 점은 논제를 제대로 읽어 ‘국가가 복지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때’라는 지점을 주목해야 포착할 수 있다. 논점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논술의 후반부에 ‘복지

사'라는 직무가 이 논술의 논제와 어떤 측면에 관련된 주체인지를 명확히 연결 짓지 못하였다. 이런 문제는 결국 나머지 [나]~[바] 제시문에 대한 해석도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단락 구성 문제〉

이 글은 체계적인 글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단락의 구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단락이 일정한 질서 없이 구성되어 체계적 구조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논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논제를 중심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이를 단락 단위로 분할한 이후에 집필에 임하여야 한다. 형식 단락의 측면만을 고려하였을 때 첫 번째 단락은 두 번째 단락의 '그러나'까지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용을 고려한다면 다양한 단락 분배 전략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글은 내용면에서든 형식면에서든 저자의 구획 의도가 명확히 보이지 않는다.

단락은 글쓴이의 생각을 자신의 질서에 따라 분할하는 단위가 되는 동시에 독자가 그 질서에 따라 읽을 수 있는 독서를 위한 호흡의 단위가 된다. 글을 쓰는 사람은 계획단계에서 이를 고려해야 한다.

〈내용 전개 방식의 문제〉

[대조] 대조의 방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조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대조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맥락이 동일해야 한다는 점이다. '남자:여자'는 성별에서 대조점을 이루고 있지만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같다는 점에 주목해보자. '남자:암컷 원숭이'는 대조되지 못한다. 이 점에 주목한다면 이 학생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나'라는 대조점에서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지를 주목해야 한다. 둘째 단락 중반의 '그러나'를 보자. 앞 문장에서 기술하던 논점과 뒤 문장에서 기술하는 논점의 바탕이 서로 달라지고 있다. 이는 문장 간의 관계라기보다는 [가] 단락과 [마] 단락을 다른 맥락에 놓고 해석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 [가] 단락과 [마] 단락 사이에 놓인 맥락 상의 차이는 [마] 단락과 [바] 단락 사이에서도 발생한다.

[상술] 이 논제에서는 '빈부 격차 심화의 문제' 자체에 대해 이렇게 길게 서술하는 것이 불필요한 장치일 수 있다. 국가가 복지 문제를 담당해야 한다는 또 다른 중요지점을 포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The 논술	2015 서강대 경제학부/경영학부
--------	-----------------------

[문제 1]	제시문 [가]에 나타난 두 관점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나]~[마]의 입장을 분류한 다음, [나]가 속한 입장에서 다른 입장을 비판하라. [800 - 900자]
--------	--

제시문 [가]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때 자기 자신의 이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익을 고려하기도 한다. 이처럼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사람들은 도덕적이다. 사람들은 본래 동정심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그 동정심과 배려의 마음은 교육을 통해 성장하기도 한다.

...중략...

그러나 사회 집단의 경우,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매우 어렵다. 모든 사회 집단은 집단을 형성하는 개인이 그들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보여주는 것에 비해서 충동을 견제하고 극복할 만한 이성이 적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릴 능력도 적어서 끝없는 이기심을 보인다. 사회 집단이 개인보다 비도덕적인 이유 중 하나는 자연적 충동을 억제할 만큼 강력한 합리적 사회 세력을 만드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중략...

인간 사회를 둘러싸는 문제의 대부분을 현실적으로 분석해 보면, 사회의 요구와 양심의 요청 사이에는 화합하기 어려운 지속적인 모순과 갈등이 발견된다. 사회를 중심에 놓고 보면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정의이고, 개인을 중심에 놓고 보면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이타성이다. 사회는 여러 면에서 어쩔 수 없이 이기심, 반항, 강제력, 원한 등과 같이 도덕적인 사람들로 부터 승인받지 못할 방법을 사용하게 될지라도 종국적으로는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

제시문 [나]

아이히만은 독일의 나치스 친위대 장교로서, 그에 의해 체포되어 강제 수용소에서 희생된 유대인의 수는 약 600만 명에 이른다. 그는 독일 패망 후 아르헨티나에서 가족과 함께 가명을 써 가며 숨어 지내다가 1960년 5월 이스라엘 비밀경찰에게 체포되었다. 이후 재판 끝에 사형을 선고받고, 결국 교수형으로 삶을 마감하였다. 아이히만이 재판정에 섰을 때, 세계 언론은 ‘인간의 얼굴을 한 악마’를 보기 위해 열띤 취재 경쟁을 벌였다. 그러나 그에게서 ‘괴물’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그의 지극히 평범한 모습에 아연실색하였다. 그는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끔찍이 아끼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는 친위대에도 그저 친구의 권유에 등 떠밀려 들어간 것이라고 하였다. 그를 추적하고 관찰한 한철학자는 “그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저 상부의 명령을 따랐으므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다. 그는 일상생활에서 아주 근면했고 무능하지도 않았다. 다만,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였다. 그가 엄청난 범죄자가 된 것은 순전히 경찰의 부재 때문이었다.”라고 말하였다. 그 철학자는 아이히만의 비극을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에서 찾았고, 그런 삶이 악임을 지적하였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았기에 아무 생각 없이 명령을 따랐고, 그 결과 엄청난 비극을 가져 왔다.

제시문 [다]

가족을 사랑하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궁극적으로 만물을 사랑해야 한다. 자기 늙은이를 보살피고 그것을 다른 사람의 늙은이를 보살피는 것으로 넓혀 가고, 자기 어린이를 보살피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의 어린이를 보살피는 데에로 나간다면 천하를 다스리기가 손바닥 위에 놓고 움직이는 것과 같이 쉬울 것이다. 또한, 나라의 임금은 부모로서 백성을 자식처럼 돌보며 백성은 자식으로서 임금을 부모처럼 섬겨야 한다.

제시문 [라]

집안 사람이 살림을 꾸려 나감에 있어서, (가혹하게 보이지만) 스스로 굶주림과 추위를 참아내도록 만들고 스스로 고생과 힘듦을 헤쳐 나가게 하면, 비록 전쟁의 어려움이나 기근의 재앙을 당하더라도 결국 따뜻하게 옷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반드시 이런 집안의 사람들일 것이다. 하지만 옷과 음식으로 서로 동정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것으로 서로 은혜를 베풀면, 흉년이 들었을 때 부인을 다른 곳으로 시집보내고 자식을 팔아치우는 것은 반드시 이런 집안의 사람들일 것이다. 그러므로 법을 가지고 도를 삼으면 처음에는 고생이 되지만 오래오래 이롭고, 인자함을 가지고 도를 삼으면 잠시 즐겁지만 뒤에는 곤궁해진다. 성인은 그 경중(輕重)을 저울질하여 커다란 이득을 취한다. 그러므로 법에 의해 서로 참아내는 것을 취하고, 인자한 사람으로 서로 연민을 가지는 것을 버린다.

제시문 [마]

이 방법은 만약 우리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원한다면 스스로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창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부정적인 에너지를 강화하지 말고 이를 피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좀 더 명랑하고 협조적인 10대 자녀들을 갖기를 원한다면 자신이 먼저 보다 이해심이 많고 공감적이며 일관성 있게 사랑을 베푸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만약 직장에서 자신이 맡은 직무에 더 큰 자율권을 가지려면 자신이 먼저 더욱 책임 있게 일함으로써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직원이 되어야 한다. 남들로부터 신뢰를 받으려면 먼저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재능과 같은 2차적인 강점을 갖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적 성품과 같은 1차적인 강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내면으로부터 시작하는 접근 방법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개인의 승리'가 남들과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대인관계의 승리'보다 앞선다. 따라서 남과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에 앞서 자기 자신과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 접근법은 내적 성품보다 외적 성격을 앞세우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라고 본다. 즉 자신을 개선하기 전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것은 결국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문제 2]

제시문 [가], [나], [다]를 이용하여 [마]의 시사점을 설명하고, [라]에 근거하여 [다]를 평가한 후, [사]의 라스티냐크에게 상위 1%의 유산을 얻을 기회가 주어질 경우 그의 결정이 [바]에 제시된 19세기 초와 20세기 초의 상황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설명하라. [800 - 900자]

제시문 [가]

사회적 자원의 희소성 유무와 정도는 나라마다 시대마다 다르지만, 그에 따른 사회 불평등은 어느 사회에나 존재한다. 어느 정도의 사회 불평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 정도가 심하면 심각한 사회 문제를 낳거나 사회적 갈등을 만들어 내고 증폭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 사회에서는 사회 불평등에 대해 관심을 두고 그것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한다.

제시문 [나]

프랑스 혁명(1789년)이 발생하기 전 프랑스의 구체제는 출생에 따른 불평등한 신분제의 원리가 지배하는 사회였다. 프랑스 인구 중 2%도 되지 않는 성직자와 귀족이 제 1, 2신분으로서 특권을 누렸고, 인구 대다수를 차지한 나머지 제 3신분이 국가의 모든 부담을 떠맡았다. 프랑스 혁명이 가져온 변화 중 많은 부분은 나폴레옹 집권 시기에도 계속 유지되었다. 즉 봉건 부과금 폐지, 독립 자영농 창출, 내부관세 징수소 철폐, 단일한 국가 행정부 창설과 같은 혁명적 조치들이 나폴레옹 시기에도 계속 수행되었으며, 정부의 정책 목표도 왕조나 귀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국가를 지향하는 방향에서 결정되었다. 특히 1804년에 제정된 나폴레옹 법전은 법 앞에서의 모든 국민의 평등, 취업의 자유와 종교적 관용, 봉건제와 봉건적 특권의 폐지, 사유재산의 존중, 배심원에 의한 재판과 프랑스 전국 민법의 통일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런 개혁적 성과 때문에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북부와 독일 남부 등지에서 전쟁을 벌이던 나폴레옹 군대는 자신들의 전쟁에 동조하는 부르주아와 민중들을 만날 수 있었다.

제시문 [다]

쿠즈네츠의 이론에 따르면, 자본주의의 더 높은 발전 단계에서는 소득 불평등이 경제 정책 선택이나 국가 사이의 다른 차이와 무관하게 결국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안정될 때까지 자동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중략...

쿠즈네츠가 묘사하는 특수한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에 기초하고 있다. 먼저 점점 더 많은 노동자가 가난한 농업 부문에서 부유한 산업 부문으로 옮겨간다. 처음에는 소수만이 그 산업부문의 부에서 혜택을 받게 되어 불평등이 증가한다. 그러나 결국에는 모두가 혜택을 받게 되고 그 결과 불평등은 감소한다. 이 같은 양식의 작동 원리는 일반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동자는 산업 부문 간에 이동하거나 저임금 일자리와 고임금 일자리 사이를 오갈 수도 있다.

...중략...

“성장은 모든 배를 뜨게 하는 밀물이다.” 1956년 로버트 솔로가 경제의 ‘균형성장 경로’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분석한 데서도 비슷한 낙관론을 찾아볼 수 있다. 이 경로는 생산, 소득, 이윤, 임금, 자본, 자산가격을 비롯한 모든 변수가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성장의 궤적이다. 이에 따르면 모든 사회 집단이 성장으로부터 같은 수준의 혜택을 보며 정상 궤도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쿠즈네츠의 견해는 불평등의 악순환에 관한 리카도와 마르크스의 생각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이며, 19세기의 종말론적인 예언들과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다.

제시문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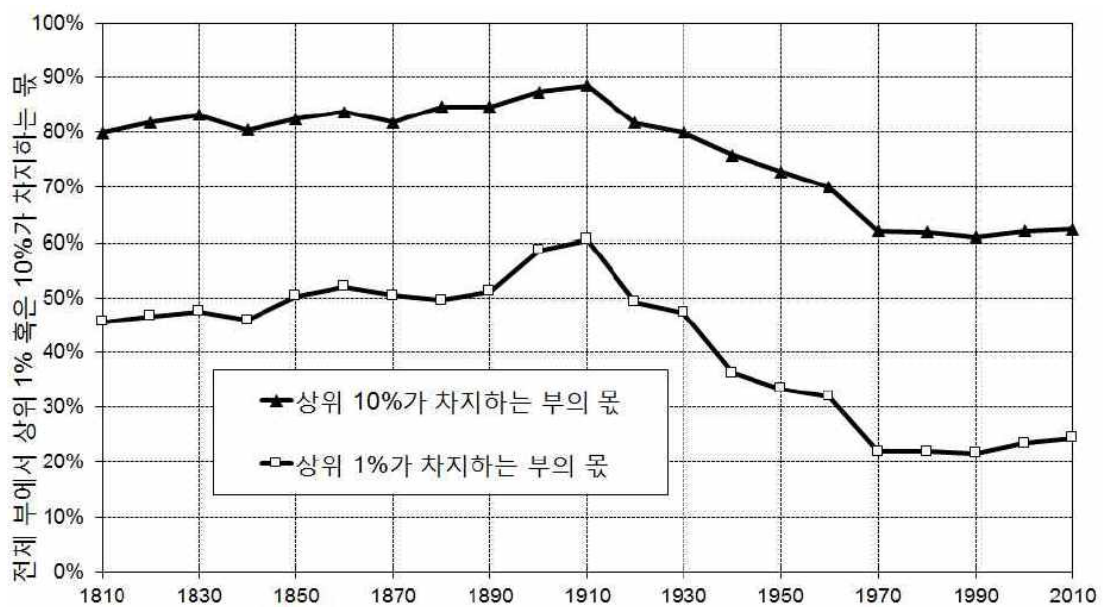
타모치우스는 그곳의 상황을 설명해 나갔다. 예를 들자면 더럽 공장주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긁어모으려는 사람이며, 그 밑으로 군대식 서열에 따라 지배인과 감독관, 십장이 있는데 각기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로 부터 최대한의 돈을 움아내려 한다는 것이었다. 같은 서열의 모든 사람들은 서로 경쟁했으며 개인별로 평가했다. 어쩌다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더 좋은 성과라도 내면 그 자리에서 쫓겨날까 전전긍긍하며 살았다. 공장은 꼭대기부터 밑바닥까지 시기와 증오로 들끓는 가마솥이었다.

...중략...

유르기스가 그곳에서 오래 일해 온 사람이었다면 모든 역겨운 일들을 해내야 하는 것은 노동자들이며 그들을 더 이상 기만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이다. 유르기스는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여 승진하고 숙련공이 될 작정이었지만 그것은 오산이었다. 패킹타운에선 일을 잘해서 승진하는 경우라곤 없었다. 승진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치고 악당이 아닌 사람이 없었다. 감독의 명으로 유르기스의 아버지를 만난 녀석은 아마 승진할 것이다. 그러나 정말로 마음먹고 제 일을 해낸 사람은 폐인이 될 때까지 부러먹히기만 하다가 시궁창에 던져질 것이 틀림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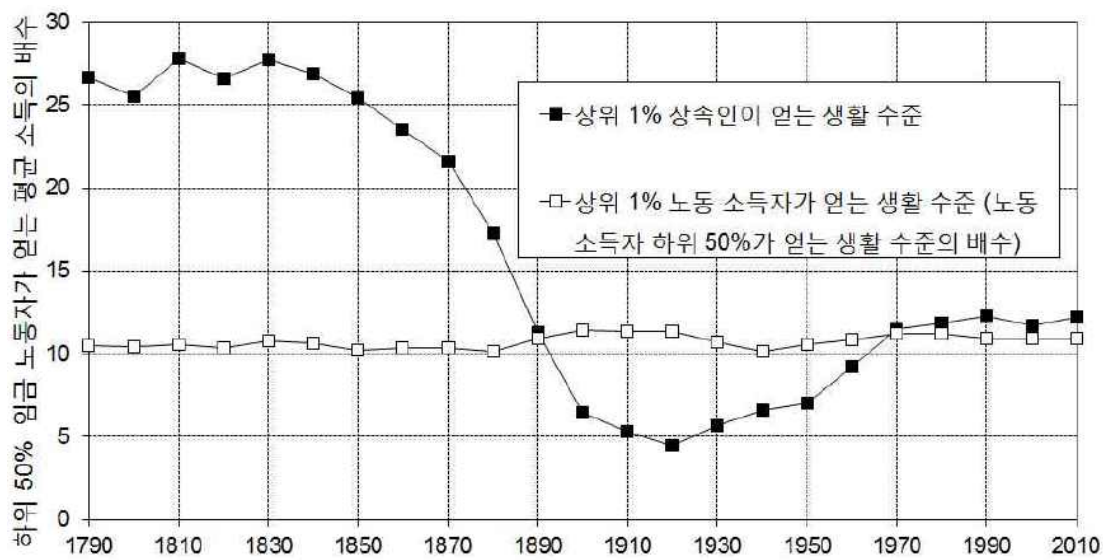
제시문 [마]

프랑스에서의 부의 불평등, 1810~2010.



제시문 [바]

프랑스 상위 1% 상속인의 생활수준과 상위 1% 노동 소득자의 생활수준, 1790~2010.



제시문 [사]

(※ 다음은 보트랭이 법학을 공부하러 파리에 온 가난한 시골 청년 라스티냐크에게 그의 장래에 대해 설교하는 장면이다.)

고결한 자네는 개라도 미쳐버릴 권태와 궁핍을 겪은 다음 어떤 괴상한 녀석의 대리역, 즉 검사보가 되겠지. 동네 한 모퉁이에 근무하며, 마치 푸줏간 개에게 수프를 던져주는 것처럼, 정부는 자네에게 천 프랑을 던져줄 걸세. 도둑을 쫓아가며 짚어대겠지. 부자를 위해서 변호하고 착한 사람들을 단두대에 보낼 거야.

...중략...

서른 살쯤 되고서도 아직 법복을 안 벗는다면 자네는 연봉 천이백 프랑의 법관이 될 걸세. 마흔 살쯤 되면 자네는 육천 프랑의 지참금을 가진 어떤 방앗간집 딸과 결혼하겠지. 제기랄. 후견인을 찾아보게. 그렇게 되면 자네는 나이 서른에 연봉 삼천 프랑의 초심재 판소 검사가 될 걸세. 그리고 시장 딸과 결혼할 테지. 만일 자네가 정치적으로 비열한 짓을 좀 하기만 하면 마흔 살쯤에 검사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겠지.

...중략...

나는 기꺼이 프랑스에는 검사장 자 리가 스무 군데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겠네. 자네는 이만 명의 후보자 가운데 한 사람일 뿐이지. 이들 가운데에서 한 계급을 승진하기 위해서 가족을 팔아버릴 만한 사기꾼들도 있다는 사실을 자네에게 영광스럽게 알려주는 바일세. 이 직업이 싫다면 다른 것을 찾아보세. 라스티냐크 남작님 나리는 변호사가 되기를 원하실까? 오! 멋있겠지. 십 년 동안 괴로움을 겪으며 한 달에 천 프랑을 쓰고 도서실과 사무실을 차려야 하겠지. 사교계에 드나들며 사건을 맡기 위해서 소송 대리인의 옷자락에 입을 맞추어야만 하지. 게다가 혀로 법정을 청소해야 하는 것일세. 자네가 이 직업에서 성공한다면 나는 다른 말을 하지 않겠네. 그러나 쉰 살이 되어 파리에서 연수(年收) 오만 프랑 이상 버는 변호사 다섯 명만 찾아보게. 어림없는 소리지! 이런 일 때문에 영혼을 망치기보다는 차라리 나는 해적이 되겠네. 어디에서 돈을 수중에 넣는단 말인가? 어쨌든 유쾌한 일이 못 되네. 여자의 지참금으로 한밀천 잡을 수는 있겠지. 그런 결혼을 하겠는가?

...중략...

만일 내가 자네에게 백만 프랑의 지참금을 가진 아가씨를 소개해 주면 어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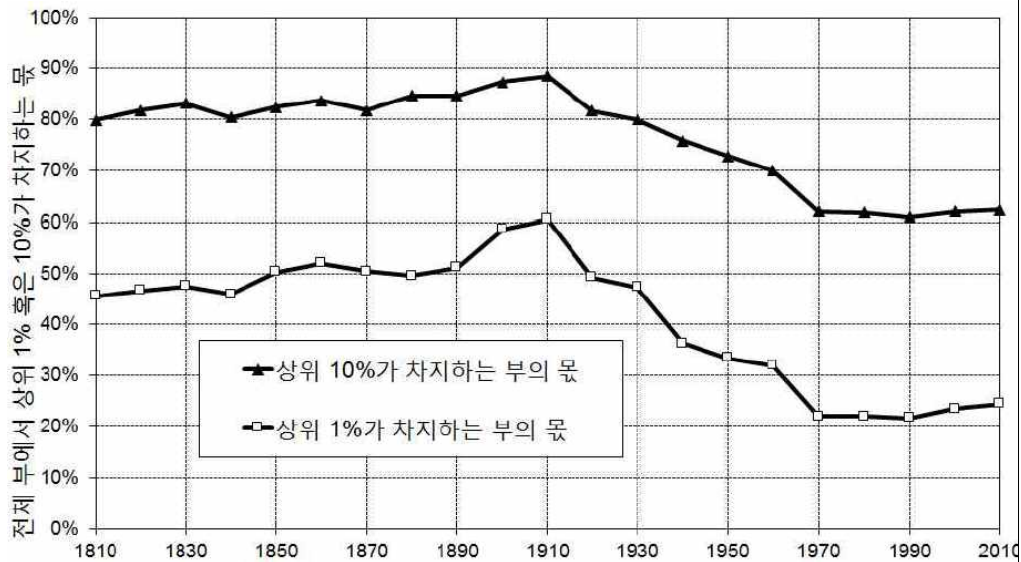
1. [문제 1] 풀이	
제시문 [가]에 나타난 두 관점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나]~[마]의 입장을 분류한 다음, [나]가 속한 입장에서 다른 입장을 비판하라. [800 - 900자]	
1) 논제이해	
①	[가]의 내용을 두 관점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적으시오.
②	첫 번째 관점에 [나]~[마] 중 어떠한 제시문들이 포함되는지 밝히고 포함되는 제시문들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라.
③	두 번째 관점에 [나]~[마] 중 어떠한 제시문들이 포함되는지 밝히고 포함되는 제시문들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라.
④	[나]가 속한 입장에서 다른 입장을 비판하되 다른 입장에 속하는 제시문들의 구체적 주장을 비판하라.
2) 제시문 독해 (요약 및 비교의 원리를 이용하여)	
[가]	제시문 내용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때 자기 자신의 이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익을 고려하기도 한다. 이처럼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사람들은 도덕적이다. 사람들은 본래 동정심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그 동정심과 배려의 마음은 교육을 통해 성장하기도 한다. ...중략... 그러나 사회 집단의 경우,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매우 어렵다. 모든 사회 집단은 집단을 형성하는 개인이 그들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보여주는 것에 비해서 충동을 견제하고 극복할 만한 이성이 적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릴 능력도 적어서 끝없는 이기심을 보인다. 사회 집단이 개인보다 비도덕적인 이유 중 하나는 자연적 충동을 억제할 만큼 강력한 합리적 사회 세력을 만드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중략... 인간 사회를 둘러싸는 문제의 대부분을 현실적으로 분석해 보면, 사회의 요구와 양심의 요청 사이에는 화합하기 어려운 지속적인 모순과 갈등이 발견된다. 사회를 중심에 놓고 보면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정의이고, 개인을 중심에 놓고 보면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이타성이다. 사회는 여러 면에서 어쩔 수 없이 이기심, 반항, 강제력, 원한 등과 같이 도덕적인 사람들로부터 승인받지 못할 방법을 사용하게 될지라도 종국적으로는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
	기준에 따른 독해 (재구성)
	제시문 [가]는 개인적 윤리의 관점과 사회적 윤리의 관점의 두 관점이 제시합니다. 개인적 윤리의 관점에서는 개인이 선한 본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타성의 추구가 최고의 도덕적 이상인 반면, 사회적 윤리의 관점에서는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사회의 구조적 악이 있으므로 사회적 선은 이런 사회 구조적 악을 직접 제거하여 정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얻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나]	<p>제시문 내용 (선택과 삭제)</p>
	<p>아이히만은 독일의 나치스 친위대 장교로서, 그에 의해 체포되어 강제 수용소에서 희생된 유대인의 수는 약 600만 명에 이른다. 그러나 그에게서 ‘괴물’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그의 지극히 평범한 모습에 아연실색하였다. 그는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끔찍이 아끼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는 친위대에도 그저 친구의 권유에 등 떠밀려 들어간 것이라고 하였다. 그를 추적하고 관찰한 한철학자는 “그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저 상부의 명령을 따랐으므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다. 그는 일상생활에서 아주 근면했고 무능하지도 않았다. 다만,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였다. 그가 엄청난 범죄자가 된 것은 순전히 성찰의 부재 때문이었다.”라고 말하였다.</p>
	<p>기준에 따른 독해 (재구성)</p>
<p>[나]는 개인적으로는 성실하지만, 사회적 악을 저지른 아이히만을 보여주며 사회적 윤리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p>	
[다]	<p>제시문 내용</p>
	<p>가족을 사랑하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궁극적으로 만물을 사랑해야 한다. 자기 늙은이를 보살피고 그것을 다른 사람의 늙은이를 보살피는 것으로 넓혀가고, 자기 어린이를 보살피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의 어린이를 보살피는 데에로 나간다면 천하를 다스리기가 손바닥 위에 놓고 움직이는 것과 같이 쉬울 것이다. 또한, 나라의 임금은 부모로서 백성을 자식처럼 돌보며 백성은 자식으로서 임금을 부모처럼 섬겨야 한다.</p>
	<p>기준에 따른 독해 (재구성)</p>
<p>[다]는 개인의 가족애의 확장이 이상정치라는 것을 말하며 사회적 차원의 윤리도 개인적 차원의 윤리가 발전된 것에 불과함을 보여줍니다.</p>	
[라]	<p>제시문 내용</p>
	<p>집안 사람이 살림을 꾸려 나감에 있어서, (가혹하게 보이지만) 스스로 굶주림과 추위를 참아내도록 만들고 스스로 고생과 힘듦을 헤쳐 나가게 하면, 비록 전쟁의 어려움이나 기근의 재앙을 당하더라도 결국 따뜻하게 옷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반드시 이런 집안의 사람들일 것이다. 하지만 옷과 음식으로 서로 동정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것으로 서로 은혜를 베풀면, 흉년이 들었을 때 부인을 다른 곳으로 시집보내고 자식을 팔아치우는 것은 반드시 이런 집안의 사람들일 것이다. 그러므로 법을 가지고 도를 삼으면 처음에는 고생이 되지만 오래오래 이롭고, 인자함을 가지고 도를 삼으면 잠시는 즐겁지만 뒤에는 곤궁해진다. 성인은 그 경중(輕重)을 저울질하여 커다란 이득을 취한다. 그러므로 법에 의해 서로 참아내는 것을 취하고, 인자한 사람으로 서로 연민을 가지는 것을 버린다.</p>
	<p>기준에 따른 독해 (재구성)</p>
<p>[라]는 개인적 인자함보다는 법과 규칙에 의한 다스림을 강조하며 사회적 차원의 윤리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p>	
[마]	<p>제시문 내용</p>

	<p>이 방법은 만약 우리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원한다면 스스로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창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부정적인 에너지를 강화하지 말고 이를 피해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좀 더 명랑하고 협조적인 10대 자녀들을 갖기를 원한다면 자신이 먼저 보다 이해심이 많고 공감적이며 일관성 있게 사랑을 베푸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만약 직장에서 자신이 맡은 직무에 더 큰 자율권을 가지려면 자신이 먼저 더욱 책임 있게 일함으로써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직원이 되어야 한다. 남들로부터 신뢰를 받으려면 먼저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재능과 같은 2차적인 강점을 갖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적 성품과 같은 1차적인 강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내면으로부터 시작하는 접근 방법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개인의 승리’가 남들과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대인관계의 승리’보다 앞선다. 따라서 남과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에 앞서 자기 자신과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 접근법은 내적 성품보다 외적 성격을 앞세우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라고 본다. 즉 자신을 개선하기 전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것은 결국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이다.</p>
	<p>기준에 따른 독해 (재구성)</p>
	<p>[마]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하며 사회의 개선보다는 개인의 개선이 먼저임을 주장합니다.</p>
<p>3) 답안 작성</p>	
<p>서강대 우수답안</p>	
<p>1문단</p>	<p>제시문 [가]에서는 개인적 윤리의 관점과 사회적 윤리의 관점의 두 관점이 제시된다. 개인적 윤리의 관점은 개인적 선의 추구가 사회적 선을 이룰 수 있는 첩경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사회적 윤리의 관점에서는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사회의 구조적 악이 있고, 따라서 사회적 선은 이런 사회 구조적 악을 직접 제거하는 데에서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가]에서 제시되어진, 이러한 두 관점으로부터 주어진 제시문들을 바라보았을 때 제시문 [나], [라]는 사회적 윤리의 관점, 제시문 [다], [마]는 개인적 윤리의 관점을 제시한다고 분류해서 볼 수 있다. 제시문 [나]는 개인적으로는 착했던 아이히만이라는 사람도 집단의 일원으로서의 얼마든지 악을 행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개인적 선의 한계를 말한다. 이와 유사한 입장의 제시문 [라]에서도 동정심과 같은 것들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지 않고, 오히려 법이나 원칙과 같은 사회적 요소들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회적 윤리의 관점과는 달리, 제시문 [다]는 부모와 자식 간의 혈연애가 가정만이 아니고, 국가 경영에서도 필수적 요소라고 주장한다. 제시문 [마]는 사회에서의 남들과의 조화로운 관계는 자신의 성품을 개선하는 것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우리가 제시문 [나]가 속한 사회적 윤리의 입장을 통해 제시문 [다]와 [마]의 개인적 윤리의 입장을 바라본다면, 개인적 윤리의 관점은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소할 수 없는 사회의 구조적 악의 존재를 간과하고, 모든 것을 개인적 선의 차원에서 해소하려 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비판해 볼 수 있다.</p>

5) 출제 의도	
문제1은 개인적 선과 사회적 선 혹은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의 개념과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고자 하였다.	
6) 채점기준	
첫째, 제시문 [가]로부터, 사회윤리와 개인윤리의 입장을 적절하게 추출해 내었는가. 둘째, 제시문들을 적절히 분류하였는가. 셋째, 개인윤리 입장의 한계 내지 문제점을 적절히 지적하였는가.	
2. [문제 2] 풀이	
제시문 [가], [나], [다]를 이용하여 [마]의 시사점을 설명하고, [라]에 근거하여 [다]를 평가한 후, [사]의 라스티냐크에게 상위 1%의 유산을 얻을 기회가 주어질 경우 그의 결정이 [바]에 제시된 19세기 초와 20세기 초의 상황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설명하라. [800 - 900자]	
1) 논제이해	
①	[마]의 자료의 분석 결과를 객관적으로 제시하시오
②	[가]의 내용을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의 시사점을 설명하시오.
③	[나]의 내용을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의 시사점을 설명하시오.
④	[다]의 내용을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의 시사점을 설명하시오.
⑤	[라]의 내용을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를 평가하시오.
⑥	[바]의 상황을 19세기 초와 20세기 초로 나누어 제시하시오.
⑦	[사]의 라스티냐크의 입장에서 선택 가능한 결정을 19세기 초와 20세기 초의 상황에 따라 나누어 제시하시오.
2) 제시문 독해 (요약 및 비교의 원리를 이용하여)	
[가]	제시문 내용
	사회적 자원의 희소성 유무와 정도는 나라마다 시대마다 다르지만, 그에 따른 사회 불평등은 어느 사회에나 존재한다. 어느 정도의 사회 불평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 정도가 심하면 심각한 사회 문제를 낳거나 사회적 갈등을 만들어 내고 증폭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 사회에서는 사회 불평등에 대해 관심을 두고 그것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한다.
	기준에 따른 독해 (재구성)
	[가]는 사회적 불평등은 어디에서나 항상 존재하며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것이 정도가 심하면 사회적 갈등이 증폭된다고 말한다.
[나]	제시문 내용
	프랑스 혁명이 가져온 변화 중 많은 부분은 나폴레옹 집권 시기에도 계속 유지

	<p>되었다. 즉 봉건 부과금 폐지, 독립 자영농 창출, 내부관세 징수소 철폐, 단일한 국가 행정부 창설과 같은 혁명적 조치들이 나폴레옹 시기에도 계속 수행되었으며, 정부의 정책 목표도 왕조나 귀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국가를 지향하는 방향에서 결정되었다. 특히 1804년에 제정된 나폴레옹 법전은 법 앞에서의 모든 국민의 평등, 취업의 자유와 종교적 관용, 봉건제와 봉건적 특권의 폐지, 사유재산의 존중, 배심원에 의한 재판과 프랑스 전국 민법의 통일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런 개혁적 성과 때문에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북부와 독일 남부 등지에서 전쟁을 벌이던 나폴레옹 군대는 자신들의 전쟁에 동조하는 부르주아와 민중들을 만날 수 있었다.</p> <p>기준에 따른 독해 (재구성)</p> <p>[나]는 프랑스 대혁명과 그 이후에 일어난 정치, 경제적 개혁을 설명하는데, 그 중 1804년 제정된 나폴레옹 법전은 사회적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부르주아들의 호응이 컸다고 말합니다.</p>
[다]	<p>제시문 내용</p> <p>쿠즈네츠의 이론에 따르면, 자본주의의 더 높은 발전 단계에서는 소득 불평등이 경제 정책 선택이나 국가 사이의 다른 차이와 무관하게 결국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안정될 때까지 자동적으로 감소하게 된다.</p> <p>...중략...</p> <p>쿠즈네츠가 묘사하는 특수한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에 기초하고 있다. 먼저 점점 더 많은 노동자가 가난한 농업 부문에서 부유한 산업 부문으로 옮겨 간다. 처음에는 소수만이 그 산업부문의 부에서 혜택을 받게 되어 불평등이 증가한다. 그러나 결국에는 모두가 혜택을 받게 되고 그 결과 불평등은 감소한다. 이 같은 양식의 작동 원리는 일반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동자는 산업 부문 간에 이동하거나 저임금 일자리와 고임금 일자리 사이를 오갈 수도 있다.</p> <p>기준에 따른 독해 (재구성)</p> <p>[다]의 쿠즈네츠 이론은 자본주의의 발전이 자연스럽게 소득불평등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p>
[마]	<p>제시문 내용 (선택과 삭제)</p> <p>프랑스에서의 부의 불평등, 1810~2010.</p>



기준에 따른 독해 (재구성)

[마]는 [가]의 사회 불평등 현상을 부의 불평등으로 계량화하여 그 추이를 보여줍니다. [나]에 설명된 나폴레옹 법전이 도입된 무렵부터 백 년간, 전체 부에서 상위 1%와 상위 10%가 차지하는 몫은, 각각 80%, 45%에서 큰 변화가 없거나 상승합니다. 비록 혁명 직후의 변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으나, [마]는 나폴레옹의 민법 등 대혁명 이후 시작된 개혁이 부의 불평등을 개선하는 성과가 크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한편, [다]의 쿠즈네츠는 자본주의의 발전이 자연스럽게 소득불평등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비록 자본주의의 발전 정도를 시기별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마]의 자료는 1910년 이후 60년 동안 부의 불평등이 계속 감소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런 부의 불평등의 감소가 노동자들의 소득 증가에 기인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제시문 내용

[라]

유르기스가 그곳에서 오래 일해 온 사람이었다면 모든 역겨운 일들을 해내야 하는 것은 노동자들이며 그들을 더 이상 기만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이다. 유르기스는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여 승진하고 숙련공이 될 작정이었지만 그것은 오산이었다. 패킹타운에선 일을 잘해서 승진하는 경우라곤 없었다. 승진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치고 악당이 아닌 사람이 없었다. 감독의 명으로 유르기스의 아버지를 만난 녀석은 아마 승진할 것이다. 그러나 정말로 마음먹고 제 일을 해낸 사람은 폐인이 될 때까지 부러먹히기만 하다가 시궁창에 던져질 것이 틀림없었다.

기준에 따른 독해 (재구성)

[라]는 승진 등을 통한 사회적 수직이동이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창출된 부는 대부분 자본에게 흘러가고 노동자들은 자본가의 필요에 따라 이용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공장 내에서의 승진과 계층 상승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라]의 유르기스의 사례는 노동자의 이동을 통해 성장의 혜택이 고르게 돌아간다는 [다]의 불평등 개선 메커니즘이 쉽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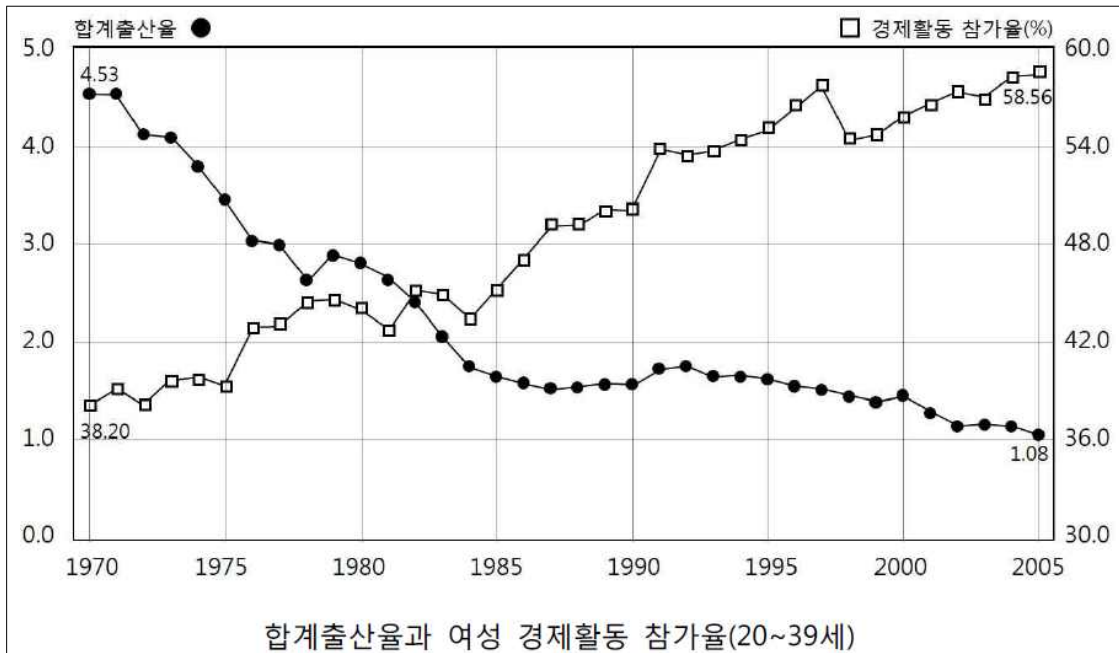
	<p>제시문 내용</p> <p>원 살이 되어 파리에서 연수(年收) 오만 프랑 이상 버는 변호사 다섯 명만 찾아 보게. 어렵없는 소리지! 이런 일 때문에 영혼을 망치기보다는 차라리 나는 해적이 되겠네. 어디에서 돈을 수중에 넣는단 말인가? 어쨌든 유쾌한 일이 못 되네. 여자의 지참금으로 한밑천 잡을 수는 있겠지. 그런 결혼을 하겠는가? ...중략...</p> <p>[사] 만일 내가 자네에게 백만 프랑의 지참금을 가진 아가씨를 소개해 주면 어떤가?</p> <p>기준에 따른 독해 (재구성)</p> <p>[사]는 검사나 성공한 변호사로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또 그를 통한 부의 축적 과정의 험난한지에 대해 서술합니다. 이는 노동자가 정당한 방법으로 수직이동을 하기가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p>																																							
	<p>제시문 내용</p> <p>프랑스 상위 1% 상속인의 생활수준과 상위 1% 노동 소득자의 생활수준.</p> <table border="1"> <caption>프랑스 상위 1% 상속인과 상위 1% 노동 소득자의 생활수준 비율 추이 (1790-2010)</caption> <thead> <tr> <th>연도</th> <th>상위 1% 상속인이 얻는 생활 수준 (배수)</th> <th>상위 1% 노동 소득자가 얻는 생활 수준 (노동 소득자 하위 50%가 얻는 생활 수준의 배수)</th> </tr> </thead> <tbody> <tr><td>1790</td><td>27</td><td>10</td></tr> <tr><td>1810</td><td>25</td><td>10</td></tr> <tr><td>1830</td><td>28</td><td>10</td></tr> <tr><td>1850</td><td>26</td><td>10</td></tr> <tr><td>1870</td><td>24</td><td>10</td></tr> <tr><td>1890</td><td>21</td><td>10</td></tr> <tr><td>1910</td><td>17</td><td>11</td></tr> <tr><td>1930</td><td>12</td><td>11</td></tr> <tr><td>1950</td><td>10</td><td>11</td></tr> <tr><td>1970</td><td>11</td><td>11</td></tr> <tr><td>1990</td><td>12</td><td>11</td></tr> <tr><td>2010</td><td>12</td><td>11</td></tr> </tbody> </table> <p>기준에 따른 독해 (재구성)</p> <p>[바]는 최상위 상속인의 생활수준이 19세기 초에는 하위층 노동자의 생활수준의 25배 이상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혼 지참금을 통해 (최상위의 노동소득자에 비해서도) 엄청난 부를 얻게 되는 기회는, 검사나 변호사로 성공해 부를 축적하기가 얼마나 험난한가를 알게 된 [사]의 가난한 법학생을 고민에 빠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 20세기 초의 최상위 상속인의 생활수준은 최상위 노동 소득자의 생활수준의 절반으로 크게 떨어져 결혼을 통한 상속의 유혹이 19세기 초에 비해 크지 않습니다. 20세기 초의 라스티냐크라면 상속을 노리고 결혼하라는 보트랭의 말을 무시하고 상위 1퍼센트의 직업을 목표로 사는 것이 더 도덕적이고 현명해 보입니다.</p>	연도	상위 1% 상속인이 얻는 생활 수준 (배수)	상위 1% 노동 소득자가 얻는 생활 수준 (노동 소득자 하위 50%가 얻는 생활 수준의 배수)	1790	27	10	1810	25	10	1830	28	10	1850	26	10	1870	24	10	1890	21	10	1910	17	11	1930	12	11	1950	10	11	1970	11	11	1990	12	11	2010	12	11
연도	상위 1% 상속인이 얻는 생활 수준 (배수)	상위 1% 노동 소득자가 얻는 생활 수준 (노동 소득자 하위 50%가 얻는 생활 수준의 배수)																																						
1790	27	10																																						
1810	25	10																																						
1830	28	10																																						
1850	26	10																																						
1870	24	10																																						
1890	21	10																																						
1910	17	11																																						
1930	12	11																																						
1950	10	11																																						
1970	11	11																																						
1990	12	11																																						
2010	12	11																																						
<p>3) 답안 작성</p>																																								
<p>1문단</p>	<p>[마]는 [가]의 사회 불평등 현상을 부의 불평등으로 계량화하여 그 추이를 보여 준다. [나]에 설명된 나폴레옹 법전이 도입된 무렵부터 백 년간, 전체 부에서 상위 1%와 상위 10%가 차지하는 몫은, 각각 80%, 45%에서 큰 변화가 없거나</p>																																							

	<p>상승한다. 비록 혁명 직후의 변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으나, [마]는 나폴레옹의 민법 등 대혁명 이후 시작된 개혁이 부의 불평등을 개선하는 성과가 크지 않았음을 시사한다.</p>
2문단	<p>한편, [다]의 쿠즈네츠는 자본주의의 발전이 자연스럽게 소득불평등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비록 자본주의의 발전 정도를 시기별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마]의 자료는 1910년 이후 60년 동안 부의 불평등이 계속 감소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런 부의 불평등의 감소가 노동자들의 소득 증가에 기인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며, 공장 내에서의 승진과 계층 상승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라]의 유르기스의 사례는 노동자의 이동을 통해 성장의 혜택이 고르게 돌아간다는 [다]의 불평등 개선 메커니즘이 쉽지 않음을 시사한다.</p>
3문단	<p>[바]는 최상위 상속인의 생활수준이 19세기 초에는 하위층 노동자의 생활수준의 25배 이상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혼 지참금을 통해 (최상위의 노동소득자에 비해서도) 엄청난 부를 얻게 되는 기회는, 검사나 변호사로 성공해 부를 축적하기가 얼마나 험난한가를 알게 된 [사]의 가난한 법학생을 고민에 빠트릴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 20세기 초의 최상위 상속인의 생활수준은 최상위 노동소득자의 생활수준의 절반으로 크게 떨어져 결혼을 통한 상속의 유혹이 19세기 초에 비해 크지 않다. 20세기 초의 라스티냐크라면 상속을 노리고 결혼하라는 보트랭의 말을 무시하고 상위 1퍼센트의 직업을 목표로 사는 것이 더 도덕적이고 현명해 보인다.</p>
4) 출제의도	
<p>사회 현상 중 하나인 부의 불평등 현상과 사회 이동을 통계자료를 통해 명확히 이해하고, 자료가 제공하는 정보를 ①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역사적 사건, ②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의 사회이동이라는 관점, ③ 문학 소설에 나타난 사회, 현실적인 문제와 연관시켜 추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p>	
5) 채점기준	
<p>첫째, 제시문 [가], [나], [다]를 이용하여 [마]의 통계 자료의 시사점을 설명할 수 있는가.</p> <p>둘째, 제시문 [라]의 내용에 근거하여 자본주의 발전과 소득 불평등의 관계에 대해 서술하고, 제시문 [다]를 평가하고 있는가.</p> <p>셋째, 제시문 [사]의 소설 속 주인공의 고민을 [바]의 통계자료에 나타난 그 시대의 현실과 연결시켜서 해석할 수 있는가.</p> <p>넷째, 기타 자료의 한계점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가.</p>	

The 논술	2015 서강대 국제인문학부/사회과학부/커뮤니케이션학부
--------	-----------------------------------

[문제 1]	제시문 [가]~[라]를 근거로 하여, [마]를 비판하라. [800 - 900자]
제시문 (가)	
<p>모든 정신적 사건들은 물리적 사건들에 의하여 완전하게 설명될 수 있다. 여기에서 물리적 사건들이란 두뇌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말한다. 내가 생각한다는 것은 나의 두뇌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정신적인 것이 물리적인 것과 동일하다고 주장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물이 H₂O 이듯이, 정신적인 사건은 두뇌에서 일어나는 신경 과정이라는 것이다.</p>	
제시문 (나)	
<p>옥스퍼드 대학교나 케임브리지 대학교를 처음 방문한 한 사람이 수많은 대학건물, 도서관, 운동장, 박물관, 학과 및 행정 사무실들을 보게 된다. 그리고 나서 그가 “그런데, 대학은 어디에 있느냐는 지금까지 대학의 구성원들이 어디에 사는지, 교직원들이 어디에서 일하는지, 과학자들이 어디에서 실험 등의 일을 하는지 봐 왔지만, 당신 대학의 구성원들이 머물고, 일하는 대학을 보지는 못했다.”라고 묻는다. 이런 질문에 대해 우리는 그에게 대학이란 당신이 본 대학건물, 연구실, 사무실과 동등한 어떤 감춰진 것, 즉 또 다른 대응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대학이란 그저 그가 이미 보았던 모든 것들이 구성되는 방식이다. 그래서 대학건물, 연구실, 사무실, 학생, 교수 등을 보고나서 이것들 간의 상호관계를 이해하게 되면 대학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 방문자는 교회, 보들리언 도서관(the Bodleian Library), 애쉬몰리언 박물관(the Ashmolean Museum)과 동열에서 그 대학에 대해 운운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여기는 순진한 가정에 따랐기 때문에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즉 그는 대학을 그 구성 부분인 여러 기관들과 동일한 범주에 귀속시키는 오류를 범했던 것이다.</p>	
제시문 (다)	
<p>이 사람이 어떻게 행위를 하는가를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 사람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그와 함께 예(禮, 의례, 의식)에 참여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타인들을 자신과 같은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대해 주었는지가 밝혀진다면, 그 행위는 인(仁, 인자함)으로도 보일 수 있다. 그리고 그의 행위양식이 어쩔 수 없이 엉망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마치 피아니스트가 연주에서 나타내려고 했지만 결국은 나타내지 못한 화음을 들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행위가 시도했던 방향, 목표, 그 행위 안에 담겨진 배려를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그 행위를 관찰할 수 있는 맥락에서 그 행위를 봄으로써 이러한 모든 것을 아는 것이지, 결코 그 사람의 머리나 완전히 내면적인 정신 영역을 들여다봄으로써 아는 것이 아니다.</p>	
제시문 (라)	
<p>심적 활동은 뇌의 과정처럼 우리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활동, 특히 관련 환경 구조를 조작·변형·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중략...</p> <p>어쨌든 이런 견해의 선두 주자인 러시아 심리학자 레브 비고츠키(Lev Vygotsky)는 동료</p>	

<p>안톤 루리아(Anton Luria)와 함께 기억과 그밖의 심적 활동의 과정이 외부 정보 저장 장치의 발전과 함께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보여주었다. 원시 문화의 탁월한 자연적 기억력은 인류가 기억 저장을 위해 개발한 문자 언어에 의존하면서 점차 약해졌다. 진화의 역사에서 보면 문자 언어의 발달은 매우 최근의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문자가 기억력과 그밖의 심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강력했다. 간단히 말해 개는 늑대와 매우 다른 환경에서 자라 왔다. 따라서 개의 심리적 과정과 능력은 매우 다른 방식으로 발달되어 왔다. 특히 개는 사람에게 의지하도록 강요되었다. 그밖에 개는 인간을 이용해 다양한 인지 및 기타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을 고안했다. 개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매우 유용한 정보 처리장치이다. 인간은 개의 '연장된 마음'(the extended mind)의 부분이다.</p>	
<p>제시문 (마)</p> <p>인간의 육체는 공간 속에 있기 때문에 공간 속의 모든 물체를 지배하는 기계적 법칙을 따른다. 육체의 제반과정과 상태에 대해 외부의 관찰자들은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육체활동은 동물이나 파충류의 활동, 심지어는 식물이나 광물 또는 별의 제반 움직임과 마찬가지로 공적 영역이 된다. 이에 반해 정신은 공간 안에 들어 있지 않으며, 그 활동이 기계적 법칙을 따르지도 않는다. 한 정신의 제반작용을 외부의 관찰자가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정신의 활동이 지극히 은밀하고 사적이기 때문이다. 나의 마음의 상태와 과정을 직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 뿐이다. 따라서 한 인간은 두 개의 병행하는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나는 육체에서 일어난 일들로 이루어지는 세계이고, 또 하나는 정신에서 일어난 일들로 이루어지는 세계이다. 육체의 세계는 공적이고, 정신의 세계는 사적이다. 전자에서 일어난 사건은 물리적 세계의 사건이고, 후자에서 일어난 것은 정신적 세계의 사건이다.</p>	
<p>[문제 2]</p>	<p>제시문 [바]의 주장의 근거로서 [바] 도표의 타당성을 논의하고, [가]의 상황에서 야기될 수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나]~[바]를 논거로 활용하여 논술하라. [800 - 900자]</p>
<p>제시문 [가]</p> <p>“엄마, 그건 전적으로 제 선택의 문제라고요.” “뭐가 네 선택이야? 그게 왜 너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니” “전 해야 할 일도 많구요, 제 주변에 혼자 사는 젊은이들도 많다구요.” “애, 요즘 젊은이들이 너처럼 생각해서 이 에미는 걱정이 많다.”</p> <p>모처럼 친정 나들이를 했다가 엄마와 말다툼만 하고 돌아왔다. 나도 결혼한 지 7년이 되었고 남편, 5살짜리 딸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그런데 요즘 자식을 하나 더 낳으라고 친정 부모님이 난리다. 나도, 남편도 아이를 좋아한다. 딸 민서가 커 가며 재롱을 부릴 때면 하나 더 낳고 싶은 생각도 들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움이 많다. 민서 낳고 다시 복직되어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정말 힘들었다. 아이 수유하고 우는 아이 떼어 놓고 출근하던 것, 아이가 열이 올라 회의 중에 병원으로 달려갔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어쩌다 야근과 회식이 있을 때면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 눈치 봤던 일들! 휴, 이제 적응할 만한데 다시 아이를 낳으라니……. 사실 엄마한테 출산이 나 자신의 문제라고 화를 내고 돌아왔지만 그게 아닌 건 나도 안다.</p>	
<p>제시문 [나]</p> <p>1970년에서 2005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우리 나라 20~39세 가임 여성의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과 경제활동 참가율은 다음과 같다.</p>	



제시문 [다]

출산 이외에도 노동 공급을 고려해야만 하는 이유는 출산 정책은 그 부작용으로 여성 노동의 감소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은 가사 노동의 가치를 높이는 경향이 있어서 그만큼 여성의 노동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여성의 노동 공급 감소는 성장 잠재력 확충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출산을 제고 정책의 효과를 논의할 때에는 그 정책이 가져올 부작용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중략...

우선, 과거 수십 년 동안의 출산율 하락 현상은 평균교육년수의 꾸준한 상승과 함께 여성 노동 참가율의 지속적 상승과 동시에 관찰되고 있다.

...중략...

또한 여성의 교육년수의 증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의 상승을 가져와 궁극적으로 여성의 취업 기회확대로 인한 출산율의 저하로 귀결되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이는 노동경제학과 신가계경제학의 자녀 양육에 관한 양과 질의 상충 관계를 경험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성의 평균교육년수 증가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 상승을 통해 출산율 저하 경향을 더욱 심화시킨 주요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시문 [라]

최근 들어 우리 사회의 급속한 변화를 알려주는 척도 중 하나로 각종 여성 신조어의 등장을 들 수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알파걸'(α-girl)인데, 알파걸이란 학교에서의 학업 성적이나 사회적 인간 관계, 리더십 등 전 영역에서 남성보다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는 엘리트 소녀를 의미한다. 이를 증명하듯이 아래의 신문 기사를 보면, 여성 고급 공무원의 수가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알파걸' 신드롬의 양상: 엘리트 관료 집단의 핵심인 재정경제부에 지난해와 올해 배치된 신입 사무관 10명과 12명 중에 여성이 각각 절반을 차지했다. 합격자 비중보다도 연수원을 마치고 난 다음 배치 과정에서도 선호 부처에서 여성이 남성을 압도하고 있다는 점이 더 시사적이다. 2005년 교육 직렬은 모집 정원 10명을 모두 여성이

채웠기 때문에 양성 평등을 위한 채용 목표제에 따라 남성 3명이 추가로 합격했다.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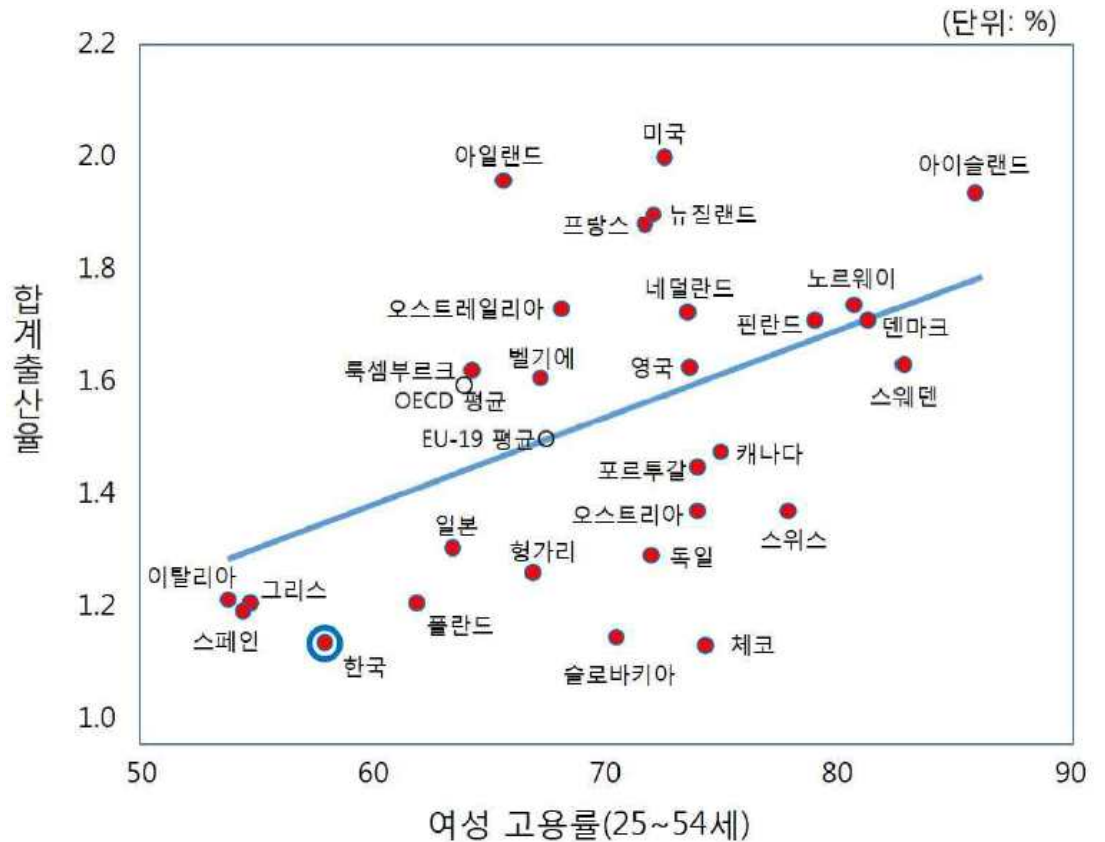
그러나 아직은 성 불평등의 현실이 바뀌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이 여전히 우위에 있다. 한마디로 말해,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낮은 한국 사회에서 10대와 20대 여성에게 괄목할 만한 성 불평등의 개선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사회 구조적으로 성 평등의 실현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현실이다.

제시문 [마]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오는 2016년에는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여 그동안 경제 성장을 뒷받침해 온 ‘인구 보너스’(Demographic Bonus) 시대는 끝나고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 시대가 시작된다. 인구 오너스는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경제 성장이 지체되는 현상이다. 인구 오너스 시대가 되면 최근 10 여 년 간 한국 경제가 겪은 두 번의 금융 위기로 인한 양극화와 세대 갈등이라는 두 개의 퍼즐을 더욱 풀기 어렵게 될 것이다.

제시문 [바]

합계출산율과 여성 고용률의 관계: 여성 고용률이 높은 나라에서 대체로 합계출산율이 높은 경향이 나타난다.



※ 주: 멕시코와 터키는 제외(멕시코: 합계출산율 2.40, 여성 고용률 45.8%; 터키: 합계출산율 2.46, 여성 고용률 28.4%).

※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2001. OECD, Society at a Glance: OECD Social Indicators, 2005.

1. [문제 1] 풀이	
제시문 [가]~[라]를 근거로 하여, [마]를 비판하라. [800 - 900자]	
1) 논제이해	
①	[마]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요약하시오.(비판의 대상이 되는 제시문을 먼저 요약)
②	[가]의 내용을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를 비판하시오.
③	[나]의 내용을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를 비판하시오.
④	[다]의 내용을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를 비판하시오.
⑤	[라]의 내용을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를 비판하시오.
2) 제시문 독해 (요약 및 비교의 원리를 이용하여)	
[마]	제시문 내용 인간의 육체는 공간 속에 있기 때문에 공간 속의 모든 물체를 지배하는 기계적 법칙을 따른다. 육체의 제반과정과 상태에 대해 외부의 관찰자들은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육체활동은 동물이나 파충류의 활동, 심지어는 식물이나 광물 또는 별의 제반 움직임과 마찬가지로 공적 영역이 된다. 이에 반해 정신은 공간 안에 들어 있지 않으며, 그 활동이 기계적 법칙을 따르지도 않는다. 한 정신의 제반작용을 외부의 관찰자가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정신의 활동이 지극히 은밀하고 사적이기 때문이다.
	기준에 따른 독해 (재구성)
	[마]는 심신이원론을 소개한다. 그러면서 육체는 물리적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공적이며 기계적이나, 정신은 물리적 공간을 차지하지 않기에 사적이며 은밀하다고 말한다.
[가]	제시문 내용 (선택과 삭제) 모든 정신적 사건들은 물리적 사건들에 의하여 완전하게 설명될 수 있다. 여기에서 물리적 사건들이란 두뇌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말한다. 내가 생각한다는 것은 나의 두뇌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정신적인 것이 물리적인 것과 동일하다고 주장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물이 H ₂ O 이듯이, 정신적인 사건은 두뇌에서 일어나는 신경 과정이라는 것이다.
	기준에 따른 독해 (재구성)
	[가]는 심신일원론을 주장하며 정신적 활동도 모두 두뇌의 물리적 변화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나]	제시문 내용 옥스퍼드 대학교나 케임브리지 대학교를 처음 방문한 한 사람이 수많은 대학건물, 도서관, 운동장, 박물관, 학과 및 행정 사무실들을 보게 된다. 그리고 나서 그가 “그런데, 대학은 어디에 있느냐나는 지금까지 대학의 구성원들이 어디에 사는지, 교직원들이 어디에서 일하는지, 과학자들이 어디에서 실험 등의 일을 하는지 봐 왔지만, 당신 대학의 구성원들이 머물고, 일하는 대학을 보지는 못했다.”

	<p>라고 묻는다. 이런 질문에 대해 우리는 그에게 대학이란 당신이 본 대학건물, 연구실, 사무실과 동등한 어떤 감춰진 것, 즉 또 다른 대응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대학이란 그저 그가 이미 보았던 모든 것들이 구성되는 방식이다. 그래서 대학건물, 연구실, 사무실, 학생, 교수 등을 보고나서 이것들 간의 상호관계를 이해하게 되면 대학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 방문자는 교회, 보들리언 도서관(the Bodleian Library), 애쉬몰리언 박물관(the Ashmolean Museum)과 동열에서 그 대학에 대해 운운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여기는 순진한 가정에 따랐기 때문에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즉 그는 대학을 그 구성 부분인 여러 기관들과 동일한 범주에 귀속시키는 오류를 범했던 것이다.</p> <p>기준에 따른 독해 (재구성)</p> <p>[나]는 대학이란 특별히 다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건물, 연구실, 사무실, 학생, 교수 등이 상호 유기적 관계를 맺으며 구성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입장을 정신과 육체의 관계에 적용해보면, 정신은 육체와 다른 특유한 성질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구성부분들이 상호 유기적 관계를 맺으며 구성되는 것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p>
[다]	<p>제시문 내용</p> <p>이 사람이 어떻게 행위를 하는가를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 사람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그와 함께 예(禮, 의례, 의식)에 참여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타인들을 자신과 같은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대해 주었는지가 밝혀진다면, 그 행위는 인(仁, 인자함)으로도 보일 수 있다. 그리고 그의 행위양식이 어쩔 수 없이 엉망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마치 피아니스트가 연주에서 나타내려고 했지만 결국은 나타내지 못한 화음을 들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행위가 시도했던 방향, 목표, 그 행위 안에 담겨진 배려를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그 행위를 관찰할 수 있는 맥락에서 그 행위를 봄으로써 이러한 모든 것을 아는 것이지, 결코 그 사람의 머리카락이나 완전히 내면적인 정신 영역을 들여다봄으로써 아는 것이 아니다.</p> <p>기준에 따른 독해 (재구성)</p> <p>[다]는 인자함과 같은 정신적 미덕도 구체적 의례와 같은 몸의 움직임에 의해 표현된다는 내용으로 정신적 가치의 행동주의적 해석을 제시한다.</p>
[라]	<p>제시문 내용</p> <p>심적 활동은 뇌의 과정처럼 우리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활동, 특히 관련 환경 구조를 조작·변형·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p> <p>...중략...</p> <p>[라] 어쨌든 이런 견해의 선두 주자인 러시아 심리학자 레브 비고츠키(Lev Vygotsky)는 동료 안톤 루리아(Anton Luria)와 함께 기억과 그밖의 심적 활동의 과정이 외부 정보 저장 장치의 발전과 함께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보여주었다. 원시 문화의 탁월한 자연적 기억력은 인류가 기억 저장을 위해 개발한 문자 언어에 의존하면서 점차 약해졌다. 진화의 역사에서 보면 문자 언어의 발달은 매우 최근의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문자가 기억력과 그밖의 심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강력</p>

	<p>했다. 간단히 말해 개는 늑대와 매우 다른 환경에서 자라 왔다. 따라서 개의 심리적 과정과 능력은 매우 다른 방식으로 발달되어 왔다. 특히 개는 사람에게 의지하도록 강요되었다. 그밖에 개는 인간을 이용해 다양한 인지 및 기타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을 고안했다. 개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매우 유용한 정보 처리장치이다. 인간은 개의 ‘연장된 마음’(the extended mind)의 부분이다.</p>		
	<p>기준에 따른 독해 (재구성)</p>		
	<p>[라]는 심적 활동이 우리의 머리에서만 일어나는 물리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 바깥의 환경을 조작, 변형,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기에, 마음이란 외부의 환경설정에서 장치까지 확장해서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p>		
<p>3) 평가하기</p>			
평가 대상	[마]	<p>[마]는 심신이원론을 소개한다. 그러면서 육체는 물리적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공적이며 기계적이나, 정신은 물리적 공간을 차지하지 않기에 사적이며 은밀하다고 말한다.</p>	
평가 기준	[가]	<p>[가]는 심신일원론을 주장하며 정신적 활동도 모두 두뇌의 물리적 변화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p> <p>-> 심적, 정신적 사건은 물리적, 육체적 사건과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물리적, 육체적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다.</p>	
	[나]	<p>[나]는 대학이란 특별히 다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건물, 연구실, 사무실, 학생, 교수 등이 상호 유기적 관계를 맺으며 구성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입장을 정신과 육체의 관계에 적용해보면, 정신은 육체와 다른 특유한 성질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구성부분들이 상호 유기적 관계를 맺으며 구성되는 것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p> <p>-> 심적, 정신적 사건은 물리적, 육체적 사건과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서로 상호 유기적 관계를 맺으며 구성되는 것이다.</p>	
	[다]	<p>[다]는 인자함과 같은 정신적 미덕도 구체적 의례와 같은 몸의 움직임에 의해 표현된다는 내용으로 정신적 가치의 행동주의적 해석을 제시한다.</p> <p>-> 심적, 정신적 사건은 물리적, 육체적 사건과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물리적, 육체적 사건에 의해 드러나는 것이다.</p>	
	[라]	<p>[라]는 심적 활동이 우리의 머리에서만 일어나는 물리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 바깥의 환경을 조작, 변형,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기에, 마음이란 외부의 환경설정에서 장치까지 확장해서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p> <p>-> 심적, 정신적 사건은 물리적, 육체적 사건과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p>	
	<p>4) 답안 작성</p>		
	<p>서강대 우수답안</p>		
1문단	<p>제시문 [가]~[라]는 공통적으로 마음과 물질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원론의 입장을 다루는 제시문 [마]를 비판하고 있다. 제시문 [마]는 마음과 몸이 그 인지방식에서는 물론이고, 그 존재방식에서도 상이한 것이라고 한다. 당연히 마음과 몸의 상호 작용도 거부하게 된다. 이에 대해 제시문 [가], [다], [라]는 심적 사건 혹은 정신적 사건이란 시간과 공간 내에 있는 물리적 사건과 별개의 사건이 아</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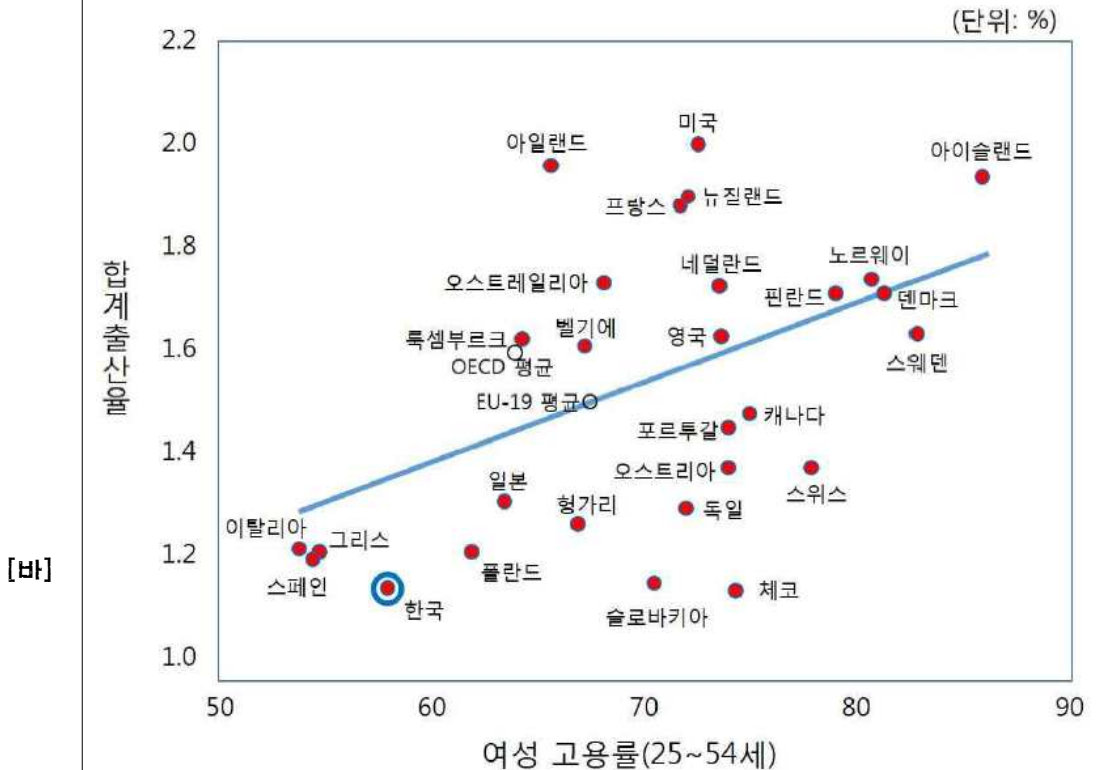
	<p>니라, 물리적 사건과 연관 내지 의존되어 있거나 혹은 더 나아가 동일한 사건이라고까지 주장한다. 제시문 [가]는 마음이 바로 두뇌의 신경과정과 같은 물리적 사건과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다]는 인자함과 같은 정신적 미덕들도 구체적인 의례, 의식과 같은 몸의 움직임에 의해 드러내지고, 파악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제시문 [라]는 심적 활동이 우리의 머리에서만 일어나는 물리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 바깥의 환경을 조작, 변형,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기에, 마음이란 외부의 환경설정 내지 장치로까지 확장해서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나]는 직접적으로 마음과 몸의 관계를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제시문 [마]에서 드러난 심신이원론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공격하는 논리를 제공할 수 있다. 예컨대, 제시문 [나]는 제시문 [마]의 이원론을 대학과 그 대학을 구성하는 대학건물, 연구실, 구성원 등을 등가물로 간주한 범주오류를 범한 이론으로 공격할 수 있다. 이러한 [나]의 논리는 마음과 몸의 상호 연관성 내지 상호 인과성의 현실을 강조하는 제시문 [가], [다], [라]와 조응하고, 반면에 이러한 현실을 부정하는 [마]의 입장과는 상충되는 입장으로 바라볼 수 있다.</p>
	<p>5) 출제 의도</p>
	<p>문제1은 마음과 물질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 중에서 심신이원론의 입장을 비판하는 여러 제시문들을 읽고, 비판의 요점을 정확히 제시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과 몸, 즉 정신과 육체의 관계에 대한 두 개의 철학적 관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이어지는 제시문을 접하면서 해당 관점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를 묻고자 하였다.</p>
	<p>6) 채점기준</p>
	<p>첫째, 제시문 [마]를 심신이원론이라는 관점으로써 제대로 제시하였는가. 둘째, 제시문 [가] ~ [라]를 위의 심신이원론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정확하게 제시하였는가.</p>
	<p>2. [문제 2] 풀이</p>
	<p>제시문 [바]의 주장의 근거로서 [바] 도표의 타당성을 논의하고, [가]의 상황에서 야기될 수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나]~[마]를 논거로 활용하여 논술하라. [800 - 900자]</p>
	<p>1) 논제이해</p>
①	[바]의 주장이 무엇인가를 밝히시오.
②	[바]의 도표를 해석하고, 이 해석결과가 [바]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적절한지 논의하시오.
③	[가]의 문제 상황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시오.
④	[나]의 내용을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시오.
⑤	[다]의 내용을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시오.
⑥	[라]의 내용을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시오.
⑦	[마]의 내용을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시오.
⑧	[바]의 내용을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시오.

2) 제시문 독해 (요약 및 비교의 원리를 이용하여)

제시문 내용 (선택과 삭제)

합계출산율과 여성 고용률의 관계: 여성 고용률이 높은 나라에서 대체로 합계출산율이 높은 경향이 나타난다.



※ 주: 멕시코와 터키는 제외(멕시코: 합계출산율 2.40, 여성 고용률 45.8%; 터키: 합계출산율 2.46, 여성 고용률 28.4%).

※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2001. OECD, Society at a Glance: OECD Social Indicators, 2005.

기준에 따른 독해 (재구성)

[바]는 여성 고용률이 높을수록 합계출산율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도표를 살펴보면, 비슷한 여성 고용률을 보이는 나라들에서도 출산율이 크게 차이가 나서 도표에서 추세선으로 표현된 것 같은 일반적인 경향성이 명확하지 않다. 특히, OECD 회원국이면서 높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멕시코와 터키를 표에 추가하는 경우 오히려 고용률의 증가가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제시문 내용

[가] 모처럼 친정 나들이를 했다가 엄마와 말다툼만 하고 돌아왔다. 나도 결혼한 지 7년이 되었고 남편, 5살짜리 딸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그런데 요즘 자

	<p>식을 하나 더 낳으라고 친정 부모님이 난리다. 나도, 남편도 아이를 좋아한다. 딸 민서가 커 가며 재롱을 부릴 때면 하나 더 낳고 싶은 생각도 들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움이 많다. 민서 낳고 다시 복직되어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정말 힘들었다. 아이 수유하고 우는 아이 떼어 놓고 출근하던 것, 아이가 열이 올라 회의 중에 병원으로 달려갔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어쩌다 야근과 회식이 있을 때면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 눈치 봤던 일들! 휴, 이제 적응할 만한데 다시 아이를 낳으라니……. 사실 엄마한테 출산이 나 자신의 문제라고 화를 내고 돌아왔지만 그게 아닌 건 나도 안다.</p> <p>기준에 따른 독해 (재구성)</p> <p>[가]는 우리 사회 여성이 출산·양육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어려움 때문에 출산을 더 이상 할 수 없음을 하소연하는 장면을 보여준다.</p>																											
<p>[나]</p>	<p>제시문 내용</p> <p>1970년에서 2005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우리 나라 20~39세 가임 여성의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과 경제활동 참가율은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caption>합계출산율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20~39세)</caption> <thead> <tr> <th>연도</th> <th>합계출산율</th> <th>경제활동 참가율(%)</th> </tr> </thead> <tbody> <tr> <td>1970</td> <td>4.53</td> <td>38.20</td> </tr> <tr> <td>1975</td> <td>3.5</td> <td>42.0</td> </tr> <tr> <td>1980</td> <td>2.8</td> <td>45.0</td> </tr> <tr> <td>1985</td> <td>1.8</td> <td>48.0</td> </tr> <tr> <td>1990</td> <td>1.6</td> <td>51.0</td> </tr> <tr> <td>1995</td> <td>1.5</td> <td>54.0</td> </tr> <tr> <td>2000</td> <td>1.3</td> <td>56.0</td> </tr> <tr> <td>2005</td> <td>1.08</td> <td>58.56</td> </tr> </tbody> </table> <p>기준에 따른 독해 (재구성)</p> <p>[나]는 가임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질수록 합계출산율이 낮아짐을 보여준다. 1970년 경제활동 참가율이 38.20%일 때 합계출산율은 4.53이었으나 2005년 경제활동 참가율이 58.56%일 때 합계출산율은 1.08로 낮아졌기 때문이다.</p>	연도	합계출산율	경제활동 참가율(%)	1970	4.53	38.20	1975	3.5	42.0	1980	2.8	45.0	1985	1.8	48.0	1990	1.6	51.0	1995	1.5	54.0	2000	1.3	56.0	2005	1.08	58.56
연도	합계출산율	경제활동 참가율(%)																										
1970	4.53	38.20																										
1975	3.5	42.0																										
1980	2.8	45.0																										
1985	1.8	48.0																										
1990	1.6	51.0																										
1995	1.5	54.0																										
2000	1.3	56.0																										
2005	1.08	58.56																										
<p>[다]</p>	<p>제시문 내용</p> <p>출산 이외에도 노동 공급을 고려해야만 하는 이유는 출산 정책은 그 부작용으로 여성 노동의 감소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은 가사 노동의 가치를 높이는 경향이 있어서 그만큼 여성의 노동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여성의 노동 공급 감소는 성장 잠재력 확충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출산을 제고 정책의 효과를 논의할 때에는 그 정책이 가져올 부작용도 동시에</p>																											

	<p>고려하여야 한다.</p> <p>...중략...</p> <p>우선, 과거 수십 년 동안의 출산율 하락 현상은 평균교육년수의 꾸준한 상승과 함께 여성 노동 참가율의 지속적 상승과 동시에 관찰되고 있다.</p> <p>...중략...</p> <p>또한 여성의 교육년수의 증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의 상승을 가져와 궁극적으로 여성의 취업 기회확대로 인한 출산율의 저하로 귀결되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이는 노동경제학과 신가계경제학의 자녀 양육에 관한 양과 질의 상충 관계를 경험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성의 평균교육년수 증가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 상승을 통해 출산율 저하 경향을 더욱 심화시킨 주요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p> <p>기준에 따른 독해 (재구성)</p> <p>[다]는 출산율 문제를 고려할 때는 여성 고용률과 경제성장의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고,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 증가가 출산율 감소와 함께 발생하는 원인은 여성교육년수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고 말한다.</p>
<p>[라]</p>	<p>제시문 내용</p> <p>‘알파걸’ 신드롬의 양상: 엘리트 관료 집단의 핵심인 재정경제부에 지난해와 올해 배치된 신입 사무관 10명과 12명 중에 여성이 각각 절반을 차지했다. 합격자 비중보다도 연수원을 마치고 난 다음 배치 과정에서 선호 부처에서 여성이 남성을 압도하고 있다는 점이 더 시사적이다. 2005년 교육 직렬은 모집 정원 10명을 모두 여성이 채웠기 때문에 양성 평등을 위한 채용 목표제에 따라 남성 3명이 추가로 합격했다.</p> <p>...중략...</p> <p>그러나 아직은 성 불평등의 현실이 바뀌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이 여전히 우위에 있다. 한마디로 말해,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낮은 한국 사회에서 10대와 20대 여성에게 괄목할 만한 성 불평등의 개선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사회 구조적으로 성 평등의 실현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현실이다.</p> <p>기준에 따른 독해 (재구성)</p> <p>[라]는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고 있으나, 여전히 사회에서의 여성들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크게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p>
<p>[마]</p>	<p>제시문 내용</p> <p>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오는 2016년에는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여 그동안 경제 성장을 뒷받침해 온 ‘인구 보너스’(Demographic Bonus) 시대는 끝나고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 시대가 시작된다. 인구 오너스는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경제 성장이 지체되는 현상이다. 인구 오너스 시대가 되면 최근 10 여 년 간 한국 경제가 겪은 두 번의 금융 위기로 인한 양극화와 세대 갈등이라는 두 개의 퍼즐을 더욱 풀기 어렵게 될 것이다.</p> <p>기준에 따른 독해 (재구성)</p> <p>[마]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노동인구 감소와 경제성장이 지체될 가능성이 높</p>

	아지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한다.
3) 답안 작성	
1문단	[바]는 고용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율도 높은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표를 살펴보면, 비슷한 여성 고용률을 보이는 나라들에서도 출산율이 크게 차이가 나서 도표에서 추세선으로 표현된 것 같은 일반적인 경향성이 명확하지 않다. 특히, OECD 회원국인 멕시코와 터키를 추가하는 경우 오히려 고용률의 증가가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즉, [바]의 도표는 그 주장을 입증하기에 타당한 근거로 보기 어렵다.
2문단	[나]와 [다]는 여성교육년수의 증가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과 함께 출산율의 저하를 가져온 것임을 말한다. [라]는 여성의 사회참가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시사하고, [마]는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경제성장 지체 현상이 발생할 것을 예고한다.
3문단	[가]에는 직장생활과 자녀 양육을 병행하는 일이 어려워 추가 출산을 꺼리는 여성의 고민이 나타나 있다. 이는 그녀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한국 다수 여성의 공통된 문제이고, 우리가 초저출산국이 된 주요 원인일 것이다.
4문단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진출은 여성의 경제활동과 자아성취 측면뿐만 아니라, 저출산 현상으로 나타나는 사회 노동인구 감소와 경제성장의 지체를 막기 위해 사회적으로도 요구되는 사항이다. 그러므로 출산율을 높이려면, 직장 여성이 출산과 육아 때문에 고용,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이 모두 높은 노르웨이 등과 같이 출산이나 육아를 사회가 함께 책임진다는 인식으로 비용, 시설, 휴직 등에 대한 복지 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성불평등 문화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4) 출제의도	
문제2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관련된 제시문들을 이해할 수 있는지, 제시문의 내용에 근거하여 합리적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지, 도표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해석할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5) 채점기준	
<p>첫째, 제시문 [바]의 주장과 그 근거로 제시된 도표 해석의 타당성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가.</p> <p>둘째, 제시문 [가]에서 드러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가.</p> <p>셋째, 출산율과 여성고용률이 반비례 관계이지만, 우리 사회가 출산율과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경제성장을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을 제시문들로부터 도출하였는가.</p> <p>넷째, 이러한 모순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개선하고, 여성이 지는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사회가 분담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는가.</p>	

The 논술	2015 서강대 모의 논술
--------	----------------

[문제 1]	제시문 [다]의 두 입장을 [가]와 [나]의 관점에서 대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라]의 쟁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라. [800 - 900자]
제시문 [가]	
<p>모든 종의 경우 필시 수많은 저해 요인이 작용하여 그 종의 평균 개체 수, 심지어는 생존 자체까지도 결정한다. 어지럽게 자라나는 수풀을 보고 있노라면, 그 식물들의 상대적인 수와 종류가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든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 미국에서 어떤 지역의 숲을 벌채하고 나니 그 자리에 전혀 다른 식물들이 돋아났다는 이야기를 누구나 들어봤을 것이다. 반면 과거 미국 남부에 있는 고대 인디언 지역의 나무를 모두 베어버렸는데, 이후 같은 자리에 같은 나무가 자라나 해당 지역의 수림은 그 주위의 처녀림과 똑같은 종이 자라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해마다 수천 개의 씨앗을 뿌리는 온갖 종류의 수목들 사이에 얼마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생존 경쟁은 같은 종의 개체들 사이에서 가장 심할 것이다. 그들은 같은 먹이를 필요로 하며 똑같은 위협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같은 종의 변종도 경쟁은 똑같이 심할 것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같은 속(屬)의 종들은 보통 습성과 체질, 구조 모두 거의 비슷한 까닭에, 그들끼리 서로 경쟁이 붙게 될 때에는 항상 다른 속(屬)의 종과 벌이는 경쟁보다 일반적으로 더 심각하다.</p>	
제시문 [나]	
<p>동물 세계나 인간 사회에서 협동이 무척 자주 일어난다는 것을 종종 관찰할 수 있다. 이 기적 개체들이 서로 협동을 하는 것은 호혜성 때문이다. 동물이 호의를 베풀면 그 호의를 입은 상대는 나중에 그에게 보답함으로써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두 개체 간에 상호 작용하는 횟수가 누적될수록 협동의 확률은 더욱 높아진다. 코스타리카 흙벌레박쥐는 낮에 고목에 매달려 있다가 밤이 되면 짐승을 찾아가 몰래 살갗에 작은 상처를 내고 조용히 피를 빨아먹는다. 그러나 마땅한 대상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자주 배를 곯곤 한다. 박쥐는 60시간 동안 피를 먹지 못하면 아사 위기에 처하는데, 다행히 그들은 하루 필요량 이상의 피를 빨아두었다가 잉여분은 다시 토해내서 다른 박쥐에게 줄 수가 있다. 이들 박쥐는 같은 장소에 여러 마리가 함께 서식하여 주고받음을 반복한다. 과거에 피를 제공한 박쥐는 그 상대로부터 피를 보답 받는다. 남은 피를 주지 않은 박쥐는 다음에 피를 얻지 못한다. 박쥐들은 이 규칙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p>	
제시문 [다]	
<p>기업 활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윤 극대화이다. 우선, 개개인이 사회 이익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추구할 때 공공의 편익이나 사회적 부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견해가 있다. 이윤 극대화 추구를 기업의 주된 목적으로 볼 경우, 합법적인 기업의 이윤 추구 활동 자체가 개인의 삶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 그리고 일자리를 제공하며,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부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간과하고 이윤 극대화만 추구할 경우 장기적으로 보면 비효율적이라는 견해도 있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때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기업의 장기적 이익과 효율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p>	

제시문 [라]

사용자 2: “임금은 지난 2월에 이미 인상 조정이 되었고, 그 조정에 따라 지급하고 있어요. 상여금도 작년 연말에 지급했어요.”

근로자 1: “일방적인 인상이었습시다. 지급된 상여금도 상여금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을 정도였어요. 한 달 잔업 수당 정도였습시다.”

사용자 2: “여러분은 연장 근로 수당을 다 받죠? 본사 사람들을 가 봐요. 밤 아홉시, 열시까지 연장 근무를 하면서도 말 한 마디 안 해요.”

근로자 1: “그들은 배운 사람들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은 배운 사람들에게 아무 기대도 걸지 않아요. 그들은 또 연 육백 퍼센트의 상여금을 받습시다. 마땅히 받아야 할 연장 근로 수당을 못 받는 것도 그들이 잘못하는 일예요. 그들이 잘못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시다.”

사용자 5: “안 되겠군.”

사용자 1: “지부장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이해관계가 아주 상반되는 거로 믿고 있죠?”

근로자 1: “지금, 은강에선 그래요.”

사용자 1: “잘못 알고 있어요. 사업이 잘 되면 이익을 보는 것은 여러 근로자들야요.”

근로자 1: “근로자들만의 이익이어서는 안 됩니다. 노사간의 이익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이상예요. 지금은 너무 불공평합니다. 공평해야 산업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

사용자 5: “왜 재로 하여금 산업 평화 운운하게 놔둬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시다.”

사용자 3: “앉으세요.”

사용자 1: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어요. 회사가 이익을 올리면 그 이익 전체를 몇 사람이 나누어 갖는 줄 아는데 아주 위험한 생각야요. 기업 이윤은 사회로 환원되고, 종업원 봉급으로 지급되고, 주주 배당금으로 나가고, 기업 자체 축적금으로 공정하게 배분되는 겁니다.”

근로자 1: “그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습시다.”

사용자 1: “준비한 말이 있으면 해 봐요.”

근로자 1: “종업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올린 수치스러운 이윤을 어느 사회에 어떻게 환원합니까? 그 이윤을 또 어떤 주주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끔직한 이윤을 축적해 또 뭘 하려는 거죠? 그런 기업은 더 이상 자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근로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는 임금을 지급하고 기계를 돌린 이상 그것은 이윤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불러져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 회장님께서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 해마다 이십억 원을 내놓으시겠다고 하신 기사를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신문 기자들 앞에서 웃고 계신 회장님 사진도 보았습니다. 부공장장님 말씀대로 공정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 공장의 근로자들에게 먹고, 자고, 일만 하다 해고 통지를 받으면 나가라고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한 기업이 새삼스럽게 사회에 뭘 내놓겠다는 것은 기만입니다. 국민의 지탄을 피하려는 속임수에 불과해요. 저희들은 회장님이 설립하신 사회 복지 재단의 이사 명단도 구해 보았습니다. 그 분들에게 기대를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그 기대도 깨져 버렸습시다.”

[문제 2]

[가]~[마]의 논거를 활용하여 [바]와 [사]에 나타난 19세기 말 세계화 추이의 공통된 특징을 논하라. [800 - 900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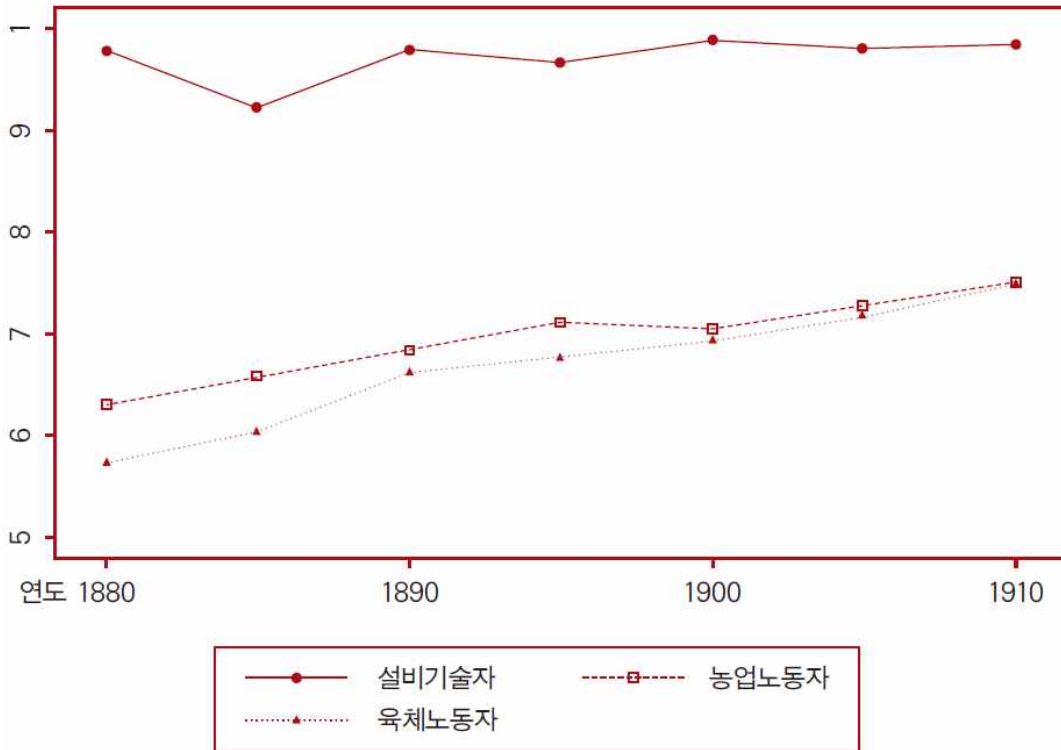
<p>제시문 [가]</p>
<p>국제 거래의 확대와 함께 세계 시장은 하나로 통합되어 가고 있다.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 등 여러 분야에서 교역이 확대되면서 국가 간의 장벽이 낮아지고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공동의 규범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 경제학적으로 세계화란 “재화, 용역, 생산요소(노동과 자본) 시장이 더욱 밀접하게 국제적으로 통합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p>
<p>제시문 [나]</p>
<p>세계화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혜택을 가져다주는가? 무역 자유화가 모두의 부를 증대시켜 준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세계화로 인해 세계의 빈부 격차가 더욱 확대된다는 견해도 있다. 가령, 선진국의 대형 유통업체가 후진국에 진출하여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게 되면 후진국의 영세 상인들은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 반대로 숙련되지 않은 근로자들이 선진국으로 진출하게 되면 선진국 노동자들의 임금은 낮아질 수 있고 이민을 배출한 나라의 임금은 상승한다.</p>
<p>제시문 [다]</p>
<p>시장 통합의 역사는 약 15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특히 국가 간 시장 통합은 대서양 연안국끼리, 그리고 유럽국들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16세기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교역 상품은 사치품에 국한되었고, 19세기 이전까지 상품 시장의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19세기 후반을 세계화의 제1차 물결, 20세기 후반을 세계화의 제2차 물결이라고 부른다. 제2차 물결에서는 상품 및 생산요소 시장에 부가하여 정보 시장의 통합이 포함된다. 국가 간 시장 통합뿐 아니라 국가 내의 시장 통합까지 논의하는 경우도 있다. [……] 세계화에 따른 상품 시장 통합 정도는 GDP 대비 무역(수출과 수입의 합)량의 비율로 측정할 수 있다. 특히 19세기 후반 상품 시장 통합은 운송비의 빠른 하락에 기인한다. 증기선의 발달이나 수에즈 운하의 개통, 철도 건설 붐, 냉장기술의 발전 등은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운송비를 절감시킨 주된 요인이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이 세계화를 가능케 할 가시적인 기술적 근간이라면 정치와 제도적 근간도 중요하다. 여기에는 상품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무역정책뿐만 아니라 “재산권의 안전, 계약의 이행,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통화 및 재정정책 등 공공재를 공급하는 각종 법적, 관습적 장치의 광범위한 집합”이 포함된다. 한마디로, 세계무역이 이루어질 안전한 환경이 19세기 말에 정착되었다는 것이다.</p>
<p>제시문 [라]</p>
<p>19세기 후반은 유럽에서 신대륙으로 대량 이민이 발생한 시대였다. 1820년 이후 100년 간 약 6천만 명이 이동했으며, 이 중 60%는 미국에 정착하였다. 19세기 중반까지 ‘구이민’의 출발지는 아일랜드, 독일, 북유럽 순이었고, 이후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러시아 출신의 ‘신이민’이 뒤따랐다. 대량 이민을 초래한 가장 결정적 요인은 이민의 출발-도착지 간의 경제적 격차다. 이것은 좁은 의미로 볼 때 임금격차로 표출되지만 더 넓게 본다면 저렴한 토지, 사회적 평등성, 종교적 자유 등 ‘광의의 경제적 기회’를 의미한다.</p>
<p>제시문 [마]</p>
<p>제1차 세계화 시기에 이민과 노동의 이동이 활발하였던 이유는 다양하였지만, 앞선 시기일수록 흡인요인보다 배출요인이 더 중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유럽을 중심으로 인구 변천이 전개되면서 인구 과잉 현상이 발생하였고 공업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구조적 실업*에 처한 비숙련 노동인구가 증가하였다는 사실이 영향을 끼쳤다.</p>

* 구조적 실업: 기술 변화나 경제 구조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취업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는 유형의 비자발적 실업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산업 혁명 시기에 역직기(동력을 이용한 방직기계)가 등장하면서 기술력이 부족한 전통적 직포공들이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제시문 [바]

직종별로 살펴본 영국 대비 아일랜드 노동자 임금 비율의 추이, 1880~1910년

영국 대비 아일랜드 임금의 비율



제시문 [사]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주요 국제 교역 상품의 가격 추이

상품명	생산지	소비지	소비지 대비 생산지 가격의 수준			
			연도	차이	연도	차이
밀	시카고	리버풀	1870	58%	1912	16%
양모	보스톤	런던	1870	59%	1912	28%
선철	필라델피아	런던	1870	85%	1913	19%
쌀	랭군	런던	1873	93%	1913	26%
면화	알렉산드리아	리버풀	1872	63%	1912	5%

가족	부에노스아이레스	런던	1870	28%	1913	9%
----	----------	----	------	-----	------	----

1. [문제 1] 풀이	
제시문 [다]의 두 입장을 [가]와 [나]의 관점에서 대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라]의 쟁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라. [800 - 900자]	
1) 논제이해	
①	[다]의 두 입장이 무엇인가와 각 입장의 특징을 간략하게 제시하시오.
②	[가]의 관점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이를 [다]의 두 입장 중 하나의 입장에 연결시키시오.
③	[나]의 관점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이를 [다]의 두 입장 중 하나의 입장에 연결시키시오.
④	[라]의 쟁점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다]의 두 입장 중 한 입장에 근거하여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라. 대비되는 관점이기에 기각논의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2) 숨은 의도 찾기	
[다]에는 두 입장이 나오는데, 이를 [가]와 [나]의 관점에서 대비하라고 하였으므로, 이 두 입장은 서로 상반되는 입장으로 하나는 [가]의 관점과 연결되며, 하나는 [나]의 관점과 연결될 것이다. 그리고 [라]의 쟁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라고 했는데, 이 쟁점은 위의 상반되는 두 관점이 대립되는 상황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쟁점에 대하여 위 상반되는 관점 중에 하나를 택하여 평가하거나(양자택일), 두 관점이 모두 한계가 있음을 드러내며 대안을 제시하며 평가(양비론 후 대안제시)하는 것이 좋다. (상반되는 두 주장이기 때문에 양시론은 옳지 않다.)	
2) 제시문 독해 (요약 및 비교의 원리를 이용하여)	
[다]	제시문 내용
	우선, 개개인이 사회 이익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추구할 때 공공의 편익이나 사회적 부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견해가 있다. 이윤 극대화 추구를 기업의 주된 목적으로 볼 경우, 합법적인 기업의 이윤 추구 활동 자체가 개인의 삶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 그리고 일자리를 제공하며,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부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간과하고 이윤 극대화만 추구할 경우 장기적으로 보면 비효율적이라는 견해도 있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때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기업의 장기적 이익과 효율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준에 따른 독해 (재구성)
	[다]는 기업의 이기적 이윤추구가 사회적 부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과 장기적 이익증진을 위해서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는 관점을 소개합니다.
[가]	제시문 내용 (선택과 삭제)
	생존 경쟁은 같은 종의 개체들 사이에서 가장 심할 것이다. 그들은 같은 먹이를 필요로 하며 똑같은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같은 종의 변종도 경쟁은 똑같이 심할 것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같은 속(屬)의 종들은 보통 습성과 체질, 구조 모두 거의 비슷한 까닭에, 그들끼리 서로 경쟁이 붙게 될 때에는 항상 다른

	속(屬)의 종과 벌이는 경쟁보다 일반적으로 더 심각하다.
	기준에 따른 독해 (재구성)
	[가]는 생존 경쟁은 경쟁의 조건이 비슷한 동일한 종 내에서 가장 심하다고 말하며, 개체의 이기적 행위가 생존에 반드시 필요함을 주장합니다.
	제시문 내용
[나]	동물 세계나 인간 사회에서 협동이 무척 자주 일어난다는 것을 종종 관찰할 수 있다. 이기적 개체들이 서로 협동을 하는 것은 호혜성 때문이다. 동물이 호의를 베푼다면 그 호의를 입은 상대는 나중에 그에게 보답함으로써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두 개체 간에 상호 작용하는 횟수가 누적될수록 협동의 확률은 더욱 높아진다.
	기준에 따른 독해 (재구성)
	[나]는 개체 간 협동은 호혜적 이익을 증진시키기에 이기적 행위보다 더 생존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중간 점검	제시문 (다)에는 기업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기적으로 움직여야한다는 입장과 사회적 책임을 위해 공리적 관점에서 활동해야한다는 두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제시문 (가)는 개체들은 서로 경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으므로 한 개체가 이기적으로 활동하지 않는다면 도태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전자의 입장을 지지하는 견해이다. 이와 반대로 제시문 (나)는 호혜적 활동을 통해 각 개체가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음을 주장하며 협력을 강조하므로 후자의 입장을 지지하는 견해로 볼 수 있다.
	제시문 내용
[라]	사용자 1: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어요. 회사가 이익을 올리면 그 이익 전체를 몇 사람이 나누어 갖는 줄 아는데 아주 위험한 생각어요. 기업 이윤은 사회로 환원되고, 종업원 봉급으로 지급되고, 주주 배당금으로 나가고, 기업 자체 축적금으로 공정하게 배분되는 겁니다.” 근로자 1: “그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사용자 1: “준비한 말이 있으면 해 봐요.” 근로자 1: “종업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올린 수치스러운 이윤을 어느 사회에 어떻게 환원합니까? 그 이윤을 또 어떤 주주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끔찍한 이윤을 축적해 또 뭘 하려는 거죠? 그런 기업은 더 이상 자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근로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는 임금을 지급하고 기계를 돌린 이상 그것은 이윤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불려져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 회장님께서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 해마다 이십억 원을 내놓으시겠다고 하신 기사를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신문 기자들 앞에서 웃고 계신 회장님 사진도 보았습니다. 부공장장님 말씀대로 공정했다면 있을

	<p>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 공장의 근로자들에게 먹고, 자고, 일만 하다 하고 통지를 받으면 나가라고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한 기업이 새삼스럽게 사회에 뭘 내놓겠다는 것은 기만입니다. 국민의 지탄을 피하려는 속임수에 불과해요. 저희들은 회장님이 설립하신 사회 복지 재단의 이사 명단도 구해 보았습니다. 그 분들에게 기대를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그 기대도 깨져 버렸습니다.”</p>
	<p>기준에 따른 독해 (재구성)</p> <p>제시문 (라)에서는 사용자는 기업이 이익을 극대화해야 그것이 개인과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며 ‘낙수효과’를 강조하는 반면에 근로자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고 근로자와 상생하려할 때 장기적으로 더 이익이 된다고 하며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다)의 전자 입장 및 (가)의 입장과 연결되어 경쟁을 통한 생존을 강조하는 입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다)의 후자 입장 및 (나)의 입장과 연결되어 상생을 통한 협력을 강조하는 입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p>
<p>3) 자신의 견해 밝히기</p>	
<p>사회 책임 지지</p>	<p>나는 제시문 (라)의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근로자와 상생할 수 있는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소비자의 신뢰를 잃으면 장기적 차원에서의 효율성을 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로자에게 열악한 근로환경과 낮은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언론 매체를 통해 알려지면 소비자들은 기업에 대한 신뢰를 철회한다. 나이키가 아프리카의 아동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부를 축적한 것이 소비자들에게 알려져서 나이키의 주가가 폭락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둘째, 근로자들이 장기적으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없는 기업에서 근로자들은 기업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관 없다고 생각하여 태업을 하게 될 것이다. 셋째, 기업은 치안이 유지된 사회에서 도로·항만·항공·철도·전기·통신 등의 사회적 인프라를 통해 부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근로자는 피용자이지만 또한 고객이기 때문이다. 기업이 그들의 고향을 짜내어 이익을 극대화한다 해도 그 잘못에 대한 화살은 결국 기업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p>
<p>4) 답안 작성</p>	
<p>1문단</p>	<p>제시문 (다)에는 기업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기적으로 움직여야한다는 입장과 사회적 책임을 위해 공리적 관점에서 활동해야한다는 두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제시문 (가)는 개체들은 서로 경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으므로 한 개체가 이기적으로 활동하지 않는다면 도태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전자의 입장을 지지하는 견해이다. 이와 반대로 제시문 (나)는 호혜적 활동을 통해 각 개체가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음을 주장하며 협력을 강조하므로 후자의 입장을 지지하는 견해로 볼 수 있다.</p>
<p>2문단</p>	<p>제시문 (라)에서는 사용자는 기업이 이익을 극대화해야 그것이 개인과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며 ‘낙수효과’를 강조하는 반면에 근로자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고 근로자와 상생하려할 때 장기적으로 더 이익이 된다고 하며 서로 대립하고 있다. 사용자는 (다)의 전자 입장 및 (가)의 입장과 연결되어 경쟁을 통한 생존을 강조하는 입장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근로자는 (다)의 후자 입장 및 (나)의 입장과 연결되어 상생을 통한 협력을 강조하는 입장이라 볼 수 있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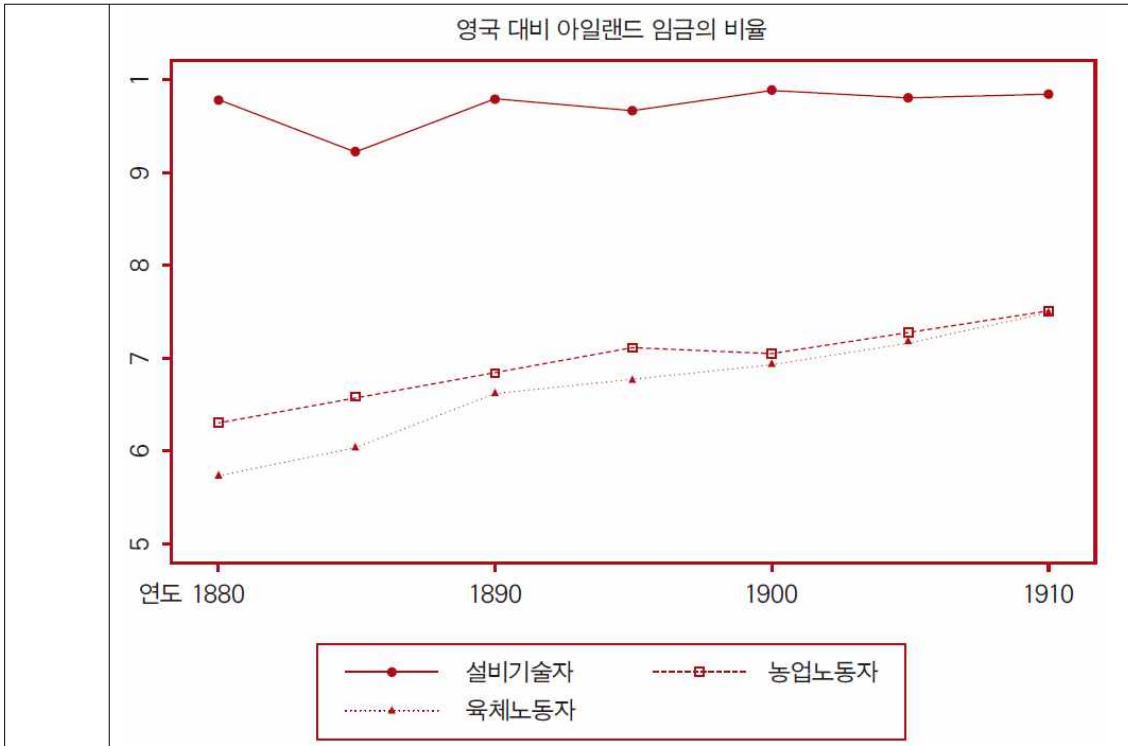
<p>3문단</p>	<p>나는 제시문 (라)의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근로자와 상생할 수 있는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소비자의 신뢰를 잃으면 장기적 차원에서의 효율성을 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로자에게 열악한 근로환경과 낮은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언론 매체를 통해 알려지면 소비자들은 기업에 대한 신뢰를 철회한다. 나이키가 아프리카의 아동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부를 축적한 것이 소비자들에게 알려져서 나이키의 주가가 폭락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둘째, 근로자들이 장기적으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없는 기업에서 근로자들은 기업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관 없다고 생각하여 태업을 하게 될 것이다. 셋째, 기업은 치안이 유지된 사회에서 도로·항만·항공·철도·전기·통신 등의 사회적 인프라를 통해 부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근로자는 피용자이지만 또한 고객이기 때문이다. 기업이 그들의 고크를 짜내어 이익을 극대화한다 해도 그 잘못에 대한 화살은 결국 기업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p>
<p>5) 출제 의도 및 문제 해설</p>	
<p>[문제1]은 쟁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타당하게 밝혀야 하는 평가형 문항이다. 발문의 표현에서, 쟁점이 드러나 있는 제시문은 [라]임을 알아낼 수 있다. 그러므로 우선 [라]에서 쟁점이 무엇인지 파악해낼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라]는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소설에서 발췌한 것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p> <p>[라]에서 선택한 관점은 제시문 [다]의 용어로 맥락화되어야 한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서 발췌한 [다]는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기업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방법에 대한 두 가지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로 제시된 견해는 이윤 극대화를 충실히 하는 것 자체가 기업에도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개인 및 사회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두 번째로 제시된 견해는, 사회적 책임을 간과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효율성조차 떨어짐을 강조한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하면, 제시문 [다]의 두 입장과 제시문 [라]의 양측 입장이 서로 연계될 수 있는 논리를 마련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분야의 쟁점인 제시문 [가]와 [나]의 논리를, 앞서 마련한 논리와 함께 통합시켜야 한다. 제시문 [가]는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일부이다. 두 가지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종은 완전히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으며, 어떤 종은 힘없이 없어져 버리기도 하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윈은 이러한 사례를 통하여, 종 이내에 치열한 ‘생존 경쟁’이 있음을 지적하고, 결국 경쟁에서 이긴 종이 살아남게 됨을 논하고 있다.</p> <p>제시문 [나]는 [가]와 대비되는 논점을 제시한다. 제시문 [나]에 등장하는 흠혈박쥐는 굶어죽지 않아야 하는 이기적 동기를 가지고 있다. 만약 오늘 피를 배불리 먹었다고 할지라도 다음에는 피를 얻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아 다른 박쥐에게 나누어주며 협력한다. 즉, 각 개체가 이기적이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아서 더 많이 베풀어야만 결국에는 상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 내용과 대비되는 핵심어는 ‘협력’이다.</p>	
<p>6) 채점 등급</p>	
<p>A</p>	<p>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출제 의도에 부합하는 개요에 따라 내용을 구성하고, 제시문 [가]와 [나]의 논지를 충분히 활용하며, [라]에 대한 자신</p>

	의 견해를 적극적이고 타당하게 밝힌 답안
B	제시문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바탕으로, 출제 의도에 부합하는 개요에 따라 내용을 구성하였으나, 제시문 [가]와 [나]의 논지를 간략히 활용하고, [라]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타당하게 밝힌 답안
C	제시문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이며, 출제 의도에 적절히 부합하는 구성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제시문 [가]와 [나]의 논지를 간략히 활용하고, [라]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소극적으로 밝힌 답안
D	제시문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이며, 출제 의도에 부합하는 구성이 아니며, 제시문 [가]와 [나]의 논지를 활용하지 못하고, [라]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소극적으로 밝힌 답안
E	출제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답안
7) 수험생 답안 및 논평	
답안	<p>[다]에서는 기업이 활동하는 데 있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과 철저히 이윤만을 추구하는 두 가지 행태를 소개하고 있다. ㉠우선 이윤극대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이윤추구 활동이 양적인 부의 상승과 발전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반대로 사회적 책임을 다했을 때는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미지 개선이 이후에 있을 모든 기업 활동에 플러스 요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중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은 [가]에서 말하는 동종끼리의 무한한 경쟁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 생존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는 것이 요즘 시대에 이윤을 추구하는 치열한 경쟁으로 환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은 [나]에서 주장하는 호혜성의 측면과 더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도 배려심 차원에서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다. 단지 경쟁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수단이 다를 뿐이지 장기적 성장의 동력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마찬가지이다.</p> <p>㉣[라]의 대화는 정당한 보수를 주지 않는 기업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대화이다. 이에 대해 나는 협동이란 키워드를 중심으로 노사가 협력하고 그 결과 근로자에게 적절한 대우가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근로자들의 이익을 보장해줘야 일의 효율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이익이 증가되어 '이윤의 극대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너무 많은 보수를 주고 복지를 제공하게 되면 기업이 소멸할 수도 있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근로자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기업의 존속은 윤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비합리적이다. 그 대신 노사 간의 꾸준한 합의나 적절한 규제가 이 쟁점의 답이 될 것이다.</p> <p>(※ 부호 및 밑줄은 논평자에 의한 것임.)</p>
논평	<p>평가 등급: C</p> <p>1) 출제 의도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는가? 출제 의도에 명확히 부합하도록 내용이 구성되어 있지 않다. 출제 의도에 명확히 부합하려면, 첫 문단은 [다]의 두 입장을 [가]와 [나]를 활용하여 대비시키고, 두 번째 문단은 제시문 [라]의 쟁점을 정리한 후 자신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개</p>

	<p>진하는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이 수험생의 답안은 [다]의 두 입장을 대비하기는 하였으나 [가]와 [나]를 활용하는 부분이 현저히 부족하다. 또한 수험생의 두 번째 문단은 제시문 [라]의 쟁점을 정리하고 있으나,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어 전반적으로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고, 제시문들의 논리와 내용을 통합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지 못하고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나열하는 데에 그쳤다는 점에서, 고득점을 받기에 어렵다.</p> <p>2) 자신의 견해를 적극적이고 타당하게 밝히고 있는가? ㉠은 제시문 [라]를 수험생 자신이 선택한 ‘근로자의 입장’에 서서 쟁점을 적절히 드러내고 있다. ㉠에서 반대쪽 입장의 논의를 다시 제기하면서 자신의 논점을 명확히 하려고 하였으나, ㉠에 제시된 내용이 바로 앞 문단의 핵심어들, 즉 [가]와 [나]의 핵심어 및 논리를 똑같이 유지하며 전개했다면 좋았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적다는 점이 가장 아쉽다.</p> <p>3) [가]와 [나]를 통합하는 논리가 적절한가? - ㉠에서는 [다]의 두 입장에 대하여,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재진술하였는데, 이는 군더더기처럼 보일 수 있으니 삭제하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의도한 것은 [다]의 내용을 [가]와 [나]의 관점으로 통합하여 재진술하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의 ‘무한 경쟁’ 역시, ‘치열한 경쟁’ 대신 바꾸어 썼는데 엄밀히 말하여 초점이 흐려지게 되니 차라리 ‘경쟁’만 부각시켜 쓰는 것이 좋겠다.</p> <p>4) 제시문을 제대로 이해하였는가? - ㉠에서는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을 [가]의 무한 경쟁과 연계하였는데, 이는 [다]를 약간 오독한 것으로 보인다. [다]에서는 기업 활동은 기본적으로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여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을, ‘이윤극대화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고쳐야 오해가 없을 것이다. - ㉡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도 사실 결과적으로는 ‘장기적 성장의 동력’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이는 아주 적절한 논의이다. 제시문 [나]의 ‘이기적 개체’, ‘횡수가 누적될수록(=장기적)’ 부분이 핵심인데, 이를 아주 정확히 읽어 적용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p>
	<p>2. [문제 2] 풀이</p>
	<p>[가]~[마]의 논거를 활용하여 [바]와 [사]에 나타난 19세기 말 세계화 추이의 공통된 특징을 논하라. [800 - 900자]</p>
	<p>1) 논제이해</p>
<p>①</p>	<p>[바]의 자료를 [가]~[마]의 논거를 활용하여 해석하라.</p>
<p>②</p>	<p>[사]의 자료를 [가]~[마]의 논거를 활용하여 해석하라.</p>

③	[바], [사]의 자료해석결과를 활용하여 19세기 말 세계화 추이의 공통된 특징을 밝혀라.
2) 제시문 독해 (요약 및 비교의 원리를 이용하여)	
[가]	제시문 내용
	국제 거래의 확대와 함께 세계 시장은 하나로 통합되어 가고 있다.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 등 여러 분야에서 교역이 확대되면서 국가 간의 장벽이 낮아지고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공동의 규범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 경제학적으로 세계화란 “재화, 용역, 생산요소(노동과 자본) 시장이 더욱 밀접하게 국제적으로 통합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기준에 따른 독해 (재구성)
	[가]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세계화의 의미를 정의합니다. 특히 “상품(재화와 용역) 시장과 생산요소(노동과 자본) 시장의 통합 과정이 두 가지 핵심키워드입니다.
[다]	제시문 내용
	일반적으로 19세기 후반을 세계화의 제1차 물결, 20세기 후반을 세계화의 제2차 물결이라고 부른다. 제2차 물결에서는 상품 및 생산요소 시장에 부가하여 정보 시장의 통합이 포함된다. 국가 간 시장 통합뿐 아니라 국가 내의 시장 통합까지 논의하는 경우도 있다. [……] 세계화에 따른 상품 시장 통합 정도는 GDP 대비 무역(수출과 수입의 합)량의 비율로 측정할 수 있다. 특히 19세기 후반 상품 시장 통합은 운송비의 빠른 하락에 기인한다. 증기선의 발달이나 수에즈 운하의 개통, 철도 건설 붐, 냉장기술의 발전 등은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운송비를 절감시킨 주된 요인이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이 세계화를 가능케 할 가시적인 기술적 근간이라면 정치와 제도적 근간도 중요하다. 여기에는 상품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무역정책뿐만 아니라 “재산권의 안전, 계약의 이행,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통화 및 재정정책 등 공공재를 공급하는 각종 법적, 관습적 장치의 광범위한 집합”이 포함된다. 한마디로, 세계무역을 이루어질 안전한 환경이 19세기 말에 정착되었다는 것이다.
	기준에 따른 독해 (재구성)
	[다]는 19세기 후반 세계화의 역사적 사례를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수험생들은 상품 시장 통합에 대한 내용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다]는 19세기 말 상품 시장 통합이 가속화된 이유로 교통과 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른 운송비 절감 그리고 제도적 안정성을 들고 있습니다.
[나]	제시문 내용
	세계화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혜택을 가져다주는가? 무역 자유화가 모두의 부를 증대시켜 준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세계화로 인해 세계의 빈부 격차가 더욱 확대된다는 견해도 있다. 가령, 선진국의 대형 유통업체가 후진국에 진출하여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게 되면 후진국의 영세 상인들은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 반대로 숙련되지 않은 근로자들이 선진국으로 진출하게 되면 선진국 노동자들의 임금은 낮아질 수 있고 이민을 배출한 나라의 임금은 상승한다.

[라]	<p>제시문 내용</p> <p>19세기 후반은 유럽에서 신대륙으로 대량 이민이 발생한 시대였다. 1820년 이후 100년간 약 6천만 명이 이동했으며, 이 중 60%는 미국에 정착하였다. 19세기 중반까지 '구이민'의 출발지는 아일랜드, 독일, 북유럽 순이었고, 이후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러시아 출신의 '신이민'이 뒤따랐다. 대량 이민을 초래한 가장 결정적 요인은 이민의 출발-도착지 간의 경제적 격차다. 이것은 좁은 의미로 볼 때 임금격차로 표출되지만 더 넓게 본다면 저렴한 토지, 사회적 평등성, 종교적 자유 등 '광의의 경제적 기회'를 의미한다.</p>
[마]	<p>제시문 내용</p> <p>제1차 세계화 시기에 이민과 노동의 이동이 활발하였던 이유는 다양하였지만, 앞선 시기일수록 흡인요인보다 배출요인이 더 중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유럽을 중심으로 인구 변천이 전개되면서 인구 과잉 현상이 발생하였고 공업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구조적 실업에 처한 비숙련 노동인구가 증가하였다는 사실이 영향을 끼쳤다.</p>
[나] [라] [마]	<p>기준에 따른 독해 (재구성)</p> <p>제시문 [나], [라], [마]는 19세기 말 세계화 과정에서 대량 이민에 따른 노동 시장의 통합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라]는 경제적 이유로 아일랜드 등 유럽에서 미국으로 대량 이민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마]에서는 유럽의 산업화 과정에서 낙오된 비숙련 노동자들이 대량 이민에 동참했다는 것을 시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시문 [나]를 통해 비숙련 노동자들이 빠져나간 (즉, 비숙련 노동자들을 배출한) 국가에서는 비숙련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간다는 결과를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수험생들이 제시문 [다]가 19세기 말 상품 시장 통합의 과정에 대한 것이고, 제시문 [나], [라], [마]가 노동 시장 통합의 과정을 설명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분류하는 능력을 요구합니다.</p>
[바]	<p>제시문 내용</p> <p>직종별로 살펴본 영국 대비 아일랜드 노동자 임금 비율의 추이, 1880~1910년</p>



기준에 따른 독해 (재구성)

그래프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직종별로 아일랜드 노동자 임금의 변화 추이를 보여줍니다. 그래프는 영국 대비 아일랜드 임금의 비율을 측정하고 있으므로, 이 값이 높아지면 영국과 아일랜드 임금의 격차가 줄어드는 것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종별로 볼 때, 비숙련 노동자로 분류되는 농업노동자와 육체노동자의 임금 비율이 커지고 있으므로, 이들 직종의 임금이 상승하여 영국과 비슷해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그 이유는 [나], [라], [마]의 제시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라]에서 말하는 것처럼 경제적 이유로 아일랜드에서 미국으로 대량 이민이 발생하였고, [마]에서 밝혔듯 그 이민자 중 대다수는 비숙련 노동자들이었으며, 그 결과 [나]의 내용처럼 비숙련 노동자들을 대거 배출한 국가에서는 비숙련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갔기 때문이다.)

제시문 내용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주요 국제 교역 상품의 가격 추이

[사]

상품명	생산지	소비지	소비지 대비 생산지 가격의 수준			
			연도	차이	연도	차이
밀	시카고	리버풀	1870	58%	1912	16%
양모	보스턴	런던	1870	59%	1912	28%
선철	필라델피아	런던	1870	85%	1913	19%
쌀	랭군	런던	1873	93%	1913	26%
면화	알렉산드리아	리버풀	1872	63%	1912	5%
가죽	부에노스아이레스	런던	1870	28%	1913	9%

	<p>기준에 따른 독해</p> <p>[사]의 <표>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주요 국제 교역 상품의 가격 추이를 보여줍니다. <표>가 제시하는 정보는 소비지 대비 생산지 가격의 격차입니다. 이 값이 높다는 것은 소비지의 가격이 생산지 가격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값이 낮아질수록 소비지와 생산지에서 '상품가격이 수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표>는 19세기 말 이후 많은 상품들에서 가격수렴 현상이 발생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그 원인은 제시문 [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에서 말하듯 19세기 말 교통과 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른 운송비 절감 그리고 제도적 안정성 때문에 상품 시장통합이 가속화되었기 때문이다.)</p>
<p>3) 답안 작성</p>	
<p>1문단</p>	<p>[가]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세계화의 의미를 정의하는데, 특히 상품시장과 생산요소시장의 통합 과정을 소개한다. [다]는 상품시장의 통합, [나], [라], [마]는 생산요소시장의 통합을 보여준다.</p>
<p>2문단</p>	<p>[바]의 그래프는 영국 대비 아일랜드 임금의 비율을 측정하고 있으므로, 이 값이 높아지면 영국과 아일랜드 간 임금의 격차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비숙련 노동자인 농업노동자와 육체노동자의 임금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들 직종의 임금이 상승하여 영국과 비슷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라]에서 말하는 것처럼 경제적 이유로 아일랜드에서 미국으로 대량 이민이 발생하였고, [마]에서 밝혔듯 그 이민자 중 대다수는 비숙련 노동자들이었으며, 그 결과 [나]의 내용처럼 비숙련 노동자들을 대거 배출한 국가에서는 비숙련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갔기 때문이다.</p>
<p>3문단</p>	<p>[사]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주요 국제 교역 상품의 소비지 대비 생산지 가격의 격차가 수렴하고 있는 현상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소비지 대비 생산지 가격의 수준 차이가 1870년도에는 약 65%였지만, 1912년도에는 약 17%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 원인은 [다]에서 말하듯 19세기 말 교통과 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른 운송비 절감 그리고 제도적 안정성 때문에 상품 시장통합이 가속화되었기 때문이다.</p>
<p>4문단</p>	<p>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바]와 [사]는 각각 생산요소시장의 통합과 상품시장의 통합을 과정을 나타내기에 공통적으로 19세기 말 세계화로 인한 상품가격과 노동가격의 수렴을 보여준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p>
<p>4) 출제의도 및 문제해설</p>	
<p>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통계자료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19세기 말 세계화 추이의 공통된 특징을 찾는 설명형 문제이다. 좋은 답안 작성의 포인트는 각 제시문이 <표>와 그래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해하여 <표>와 그래프가 보여주는 특징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다. 또한 <표>와 그래프가 제시하는 정보의 공통점을 찾는 것도 필요하다. 제시문 중 일부는 『고등학교사회』 교과서에서 직접 인용한 것이며, 다른 제시문들과 그에 인용된 역사적 사례도 『고등학교 국어』, 『경제』, 그리고 『세계사』 교과목의 수준을 넘지 않도록 선택하였다. <표>와 그래프에서 제시하는 정보와 표현방식도 『고등학교 수학』 수준에 맞게 제시하여, 수험생들의 통계자료 분석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p> <p>제시문 [가]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세계화의 의미를 정의한다. 특히 “상품(재화와 용역)</p>	

시장과 생산요소(노동과 자본) 시장의 통합 과정”이 키워드이다. 수험생들은 이하 제시문들의 내용이 상품 시장의 통합과 노동 시장의 통합 과정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제시문 [다]는 19세기 후반 세계화의 역사적 사례를 보여준다. 무엇보다 수험생들은 상품 시장 통합에 대한 내용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는 19세기 말 상품 시장 통합이 가속화된 이유로 교통과 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른 운송비 절감 그리고 제도적 안정성을 들고 있다.

제시문 [나], [라], [마]는 19세기 말 세계화 과정에서 대량 이민에 따른 노동 시장의 통합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라]는 경제적 이유로 아일랜드 등 유럽에서 미국으로 대량 이민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제시한다. [마]에서는 유럽의 산업화 과정에서 낙오된 비숙련 노동자들이 대량 이민에 동참 했다는 것을 시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제시문 [나]를 통해 비숙련 노동자들이 빠져나 간 (즉, 비숙련 노동자들을 배출한) 국가에서는 비숙련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간다는 결과를 설명한다.

따라서 이 문제는 수험생들이 제시문 [다]가 19세기 말 상품 시장 통합의 과정에 대한 것이고, 제시문 [나], [라], [마]가 노동 시장 통합의 과정을 설명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분류하는 능력을 요구 한다.

이제 [바]의 그래프를 보자. 그래프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직종별로 아일랜드 노동자 임금의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그래프는 영국 대비 아일랜드 임금의 비율을 측정하고 있으므로, 이 값이 높아지면 영국과 아일랜드 임금의 격차가 줄어드는 것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종별로 볼 때, 비숙련 노동자로 분류되는 농업노동자와 육체노동자의 임금 비율이 커지고 있으므로, 이 둘 직종의 임금이 상승하여 영국과 비슷해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그 이유는 [나], [라], [마]의 제시문에서 찾을 수 있다.

다음으로 [사]의 <표>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주요 국제 교역 상품의 가격 추이를 보여준다. <표>가 제시하는 정보는 소비지 대비 생산지 가격의 격차이다. 이 값이 높다는 것은 소비지의 가격이 생산지 가격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값이 낮아질수록 소비지와 생산지에서의 ‘상품가격이 수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표>는 19세기 말 이후 많은 상품들에서 가격수렴 현상이 발생하였음을 보여준다. 그 원인은 제시문 [다]에서 찾을 수 있다.

5) 채점기준

A	제시문들을 상품 시장 통합과 노동 시장 통합 과정으로 올바르게 분류하여 이를 <표>와 그래프에 적절히 적용하고, <표>와 그래프가 제시하는 정보를 명확히 설명하여 공통된 특징을 제대로 기술한 답안.
B	제시문들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표>와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명확히 하였으나, 공통된 특징을 제대로 찾지 못한 답안.
C	제시문들을 적절히 분류하였으나, <표>와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답안.
D	제시문들을 <표>와 그래프 설명에 적절히 활용하지 못한 답안.
E	제시문 분류에 실패하고 서술을 제대로 못한 답안.

6) 수험생 답안 및 논평	
답안	<p>[가]~[마]의 논거를 바탕으로 했을 때, [바]에서 다루고 있는 두 나라의 임금격차는 경제적 의미의 세계화에 기인한다. 우선 표에서 설비기술자, 농업노동자 그리고 육체노동자 사이의 임금의 괴리는 설비기술자가 전문직이기 때문에 발생한다. 즉 유입과 배출의 유무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숙련된 노동자라는 것이다. 반면 ㉠육체노동자와 농업노동자는 전문직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 유입과 배출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이다. 그런데 ㉡비전문직 노동자들의 임금의 비율이 시간이 갈수록 상승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세계화 이후 선진국에 유입되는 대량의 비숙련노동자들로 인한 영국의 평균 비숙련노동 임금 하락, 혹은 ㉢‘구이민’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배출 때문에 점점 상승하는 아일랜드의 임금상승 두 가지 모두 이유가 될 수 있다.</p> <p>[사]의 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비자 대비 생산지 가격의 수준이 대폭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도 세계화의 자취를 찾을 수 있다. 생산지가 대부분 신대륙에 위치한 것으로 보아, 값 싼 토지와 노동력을 꾀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다]에서 말한 1차 세계화 물결의 주요 동력인 ㉤운송기술의 발달, 그리고 그에 따른 운송비 절감과 연동이 되어 소비자 대비 생산지 가격의 수준을 낮출 수 있었던 것이다.</p> <p>[바]와 [사]에서 나타난 현상들은 ㉥공통적으로 세계적인 시장통합을 시사하고 있다. 각국 간의 생산요소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과, 운송비의 절감으로 인한 물리적 거리감의 축소가 그 이유이다. 하지만 두 자료에서 모두 ‘격차’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것이 꼭 이롭기만 하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부호 및 밑줄은 논평자에 의한 것임.)</p>
논평	<p>평가 등급: B</p> <p>•세계화에 따른 노동 시장 통합의 결과 예시답안 첫 문단의 밑줄 친 ㉠과 ㉡에서 볼 수 있듯이 수험생은 [바]의 그래프가 보여주는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특히 비숙련 노동자들의 임금 비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높아지고 있는 것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에서는 그 원인을 아일랜드의 비숙련 노동자들이 이주한 것에서 찾고 있다. 다만 그래프에서 관측된 현상의 원인을 논의할 때, 제시문에서 언급한 19세기 후반의 산업화와 구체적으로 관련되었다면 좋았을 것이다.</p> <p>•세계화에 따른 상품 시장 통합의 결과 ㉤에서 볼 수 있듯이 수험생은 [사]에서 제시한 <표>의 정보도 잘 파악하였다. 또한 ㉤에서는 제시문 [다]가 언급한 교통기술의 발달에 따른 운송비 절감을 <표>에서 관측된 추이의 원인으로 정확히 지적하였다.</p> <p>•세계화 결과의 공통된 특징 예시 답안의 ㉥에서 수험생은 [바]와 [사]의 공통된 특징을 정확히 제시하지 못하였다. 수험생이 언급한 세계적인 시장 통합은 이 문제의 주제일 뿐이며, <표></p>

와 그래프가 없어도 쉽게 파악되는 내용이다. 다시 말해 수험생은 출제자의 질문과 출제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였다.

•어법, 구성 등

수험생의 답안은 전반적으로 잘 작성되었으나 어법과 논리구조를 좀 더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